



**제 4회
덕성 글쓰기 공모전 수상작**

주최·주관 차미리사교양대학 소통역량개발센터

제4회 덕성 글쓰기 공모전 수상작

대 상	김도희		
최우수상	김지원	박승주	
우 수 상	김 별	안혜림	유다현
장 려 상	김가현	김한별	노미리
	안선하	윤다님	이다솜
	이은선	이주은	임상희
	정희림	황수연	

주최·주관 차미리사교양대학 소통역량개발센터

목 차

1. <대상 수상 소감> 환상통. 김도희	1
2. <대상> 환상통. 김도희	2
3. <최우수상> 푸르던. 김지원	7
4. <최우수상>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다른 삶. 박승주	16
5. <우수상> 수취인불명 우편입니다. 반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별	23
6. <우수상>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안혜림	30
7. <우수상> 이근영과 박화영, 김화영과 유근영, 서근영과... 유다현	36
8. <장려상> 보이지 않는 공포에게 작별을. 김가현	43
9. <장려상> 노인들도 꽃이 되고 싶다. 김한별	48
10. <장려상> 적막하고 소란했던 백 번째 생일. 노미리	52
11. <장려상> 『깊이에의 강요』 만족시킬 수 없는 깊이에 대한 대답. 안선하 · 56	
12. <장려상> 인간의 표본 오이디푸스. 윤다님	61
13. <장려상> 죽음의 취업길에서 행복하기. 이다솜	65
14. <장려상> 암탉이 울면 세상이 바뀐다. 이은선	71
15. <장려상> 자신을 뒤집을 것. 이주은	75
16. <장려상> 완벽한 세계라는 것은. 임상희	78
17. <장려상> 인공지능은 인류의 생애를 흔들지 못한다. 정희림	81
18. <장려상> 누가 우리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나. 황수연	85

<대상 수상 소감>

환상통

글로벌융합대학 김 도 희

영화 ‘코코’를 본 뒤 절대자의 평가가 주변 사람들의 기억보다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는 절대자의 평가에서는 행위 동기처럼 정작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부여하는 가치와 인간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누군가의 삶이 그와 무관한 절대자에 의해 한순간에 평가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권선징악의 성격을 띤 사후세계는 현재의 삶을 바르고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위해 존재하리라 추측했습니다. 바람직한 삶을 권하기 위해 사후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초점을 사후세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해 존재에서 오는 의미와 살아있기에 구성할 수 있는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주인공의 죽음에도 무감각한 세상과는 대조적인 가족들의 세상을 그려내 특수한 관계 속에서 존재가 지닌 의미를 그려냄과 동시에 동시에 사회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없어진 주인공의 육체와 아버지의 손가락에서 오는 통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존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돌이켜 볼 수 있게 하고자 ‘환상통’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상을 받았을 때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수상자 명단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을 내놓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껏 읽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뻐 벽찰 만큼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지를 통해 글을 접할 모든 분께도, 꾸준히 글을 읽어주는 친구들에게도 읽어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 상>

환상통

글로벌융합대학 김 도 희

0.

너는 내가 왜 죽었는지 궁금할 거야. 나는 우울하지 않았어. 삶이 힘들지도 않았어. 지나치게 돈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고 괴롭힘을 당해서도 아니야. 주체하지 못할 만큼 화가 나는 것도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충분히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단지 그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더는 알고 싶은 게 없었고, 먹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없었어. 나는 계속 생각하고 충분히 살았다 싶었어. 나는 정말로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죽기로 했어.

1.

나는 죽었고, 단지 그뿐이었어. 몸은 마지막까지 찾을 수 없었어. 나의 몸은 검은 물 아래에 묻혀 있을 테니 당연할지도 몰라. 물빛이 너무 어두워서 나조차도 날 볼 수 없었어. 나는 내가 투신했던 곳에서 떠나지 않고 경찰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어. 그들은 내가 죽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그곳에 왔어. 그들이 오지 않게 된 이후에도 난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어. 흔들리는 수면을 보며 가라앉은 내 몸을 떠올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 물속에 있었으니 지금쯤이면 아마 부패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 손가락(혹은 발가락)은 물고기 밥이 되어 온전치 못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눈은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물에게 먹혔으니 물의 내장이 날 모조리 소화했을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어. 온전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기 때문이야.

2.

내 장례식을 보고 싶었고 나는 다리를 떠나기로 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 위를 걸어야 했어. 하늘을 나는 일 따위는 할 수 없었어. 어릴 적 보았던 동화책 소설책 영화의 내용은 모두 틀렸어. 나는 여전히 우울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 다만 조금 힘이 없었어. 바람이 불면 꼭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어. 나풀거리며. 바람에 나부끼다 끝내 날아가는 무언가처럼. 다리를 지나가는 차들은 여전히 빨랐어. 그들은 모두 앞만 보고

있었어. 그들에게는 타인의 죽음을 애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야. 다들 너무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겠지. 마음 놓고 울기도 어려운. 작은 한숨 내뿜기도 어려운.

3.

장례식장에서 나는 거의 쓰러져가는 엄마를 봤어. 퍼석한 검은 치마가 아무렇게나 되도록 엄마는 앉아있었어. 내가 데려다줬으면 안 그랬을까. 집 떠나기 전에 한마디만 더 엮어줬으면 안 그랬을까. 매분 매초 숨이 콕콕 막힌다며 엄마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도문을 읽었어. 아빠는 기도문을 읽으며 울었어. 책을 찢 투박한 손이 애처롭게 떨렸어. 그렇게 서럽게 우는 아빠를 난 평생 본 적이 없었어. 아빠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영망이 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부모님을 대단했던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싶었어.

3-1.

설날같이 큰 잔치날 한두 번 만나고 말았던 먼 친척들도 왔어. 모인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물었어. 조금은 우울한 만남이었어. 인아는 잘 있죠? 그럼요. 친구들의 얼굴도 보았어. 검은 옷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내 사진 앞에 꽃을 내려놓았어. 눈시울을 붉게 물들인 친구들은 되레 위로를 받았어. 네가 채은이구나. 고마워. 내 사진을 둘러싼 꽃의 향기는 너무 독했고 향의 냄새는 자극적이었어. 나는 사진 속의 나를 남 보듯 바라보았어. 사실 정말 남인 것처럼 보였어. 웃고 있는 내 모습은 참 낯설었어. 넌 누구냐고 묻고 싶었어. 아빠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왔어. 아빠는 그 사람들과 술을 마셨어. 술과 같이 놓인 마른안주가 더 마를 때까지. 몸이 술을 이기지 못해 고꾸라질 때까지.

4.

장례식장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온 나는 몇 달 전 졸업했던 학교로 갔어. 그사이 나는 새삼 이승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지.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어느 여름날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오느라 수고 많았다는 얘길 들으면 당장에라도 눈물을 터뜨릴 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던 신애를 생각했어. 내가 공부하던 책상에는 흰 꽃 두어 송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수업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지쳐 책상 오른쪽 모서리를 커터칼로 긁어 만들어낸 상처는 여전했어. 몰래 그려놓은 그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연필로 그렸던 탓에 색이 조금 열어졌을 뿐이었지. 그 낙서를 두고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들이 드문드문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기분이 무척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 나는 그 책상이 이른 시일 내로 치워졌으면 했어. 빈 교실에 가만히 있으니 이 자리에서 수업 듣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 그곳에 있었지.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샤프로 무언가를 적기도 했지. 그러나 지금 나는 교복을 입

을 수도 샤프를 들 수도 없어. 애당초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지. 교실에 들어찬 책상 중에 날 위한 책상은 없었어. 내가 앉던 책상조차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닌걸. 내가 속한 세상이 다른 사람들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즈음 교실은 온통 붉게 물들었어. 노을이 지고 있었어. 얼마 뒤면 아빠가 돌아올 거야. 나는 곧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어.

5.

나는 하염없이 걸었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그들을 볼 수 있었어. 빛가림이 짙게 된 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어. 멀리서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샤워를 하는 듯 물소리가 들려왔어.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고양이는 시끄럽게 울었어. 자동차 소리가 너무 컸던 탓에 귀를 막아야 했어. 그런데도 온갖 소리는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왔어.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거리를 걷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타인의 아픔을 몸에 문혔겠지. 세상이 어둠에 물들 때 즈음 집에 오면 뜨거운 물을 틀고 타인의 아픔을 씻어내겠지. 내일의 아픔을 준비하며. 일순 내 세상이 흔들렸어. 이제는 있지도 않은 두 눈이 몹시 시렸어. 마음만 먹으면 두 손이 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어. 두개골 깊은 곳에 눌러붙은 슬픔을 끄집어내어 눈으로 뽑아내면 더는 시리지 않을까? 살아있을 적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숨어 있던 자리에 물고기가 들어찬 것일까?

6.

나는 우리 집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 무엇 때문에 망설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다만 막연하게 겁이 났어. 하지만 나는 집에 들어가야 했지.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 거실은 무척이나 차가웠어. 그 차가운 공간에서 엄마는 소파에 몸을 기대 채로 가만히 앉아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도 이질적이었어. 평범한 거실에 엄마 혼자 덩그러니 떼어다 놓은 것만 같았어. 엄마는 먼지를 보려는지 허공에 공기를 세려는지 한참을 텅 빈 눈을 하고 어딘가를 보았어. 그 시선의 끝은 너무 흐렸어. 엄마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어.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보았지. 엄마의 잠금 화면에서는 내가 엄마와 함께 웃고 있었어. 꼭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지. 제주도에 갔었는데. 하늘이 청명하던 날이었어. 어쩜 구름이 한 점도 없니. 엄마는 내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 했어. 풍경을 찍으라니까.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 내가 아무리 툭툭 거려도 내 사진만을 찍었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사진을 보며 그렇게 흐뭇해했지. 뭐가 그리도 좋아서. 본인의 사진은 몇 장 없이 전부 내 사진이었는데도. 사진은 유채꽃이 한창 이었던 들판에 머무른 내 기억을 어렴풋하게 상기시켰어. 그 사진은 내가 나온 사진 겹 몇 장 안 되는 엄마가 나온 사진이었어. 엄마는 황급히 핸드폰을 껐어.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나와 엄마의 얼굴이 까맣게 사라졌어. 엄마의 눈이 다시 붉게 물들었어. 투박한 엄지손가락이 핸드폰 화면을

쓸고 지나갔어. 그때 나는 내 어깨가 불에 덴 듯이 뜨겁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 있지도 않은 어깨가 타버리는 것만 같았어. 고통이 생생해. 있지도 않은 어깨인데. 엄마는 내 모습을 다시 보기가 겁이 나는 것일지도 몰라.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테니까. 그러나 나는 엄마가 곧 다시 핸드폰을 켜 그 사진을 보리라는 것을 알아. 엄마는 핸드폰 화면을 꺾다 켜기를 반복하겠지. 망가질 때까지 복만 치는 원숭이 인형처럼. 엄마가 꼭 그럴 거야. 화면 속 엄마와 나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겠지. 어깨의 통증은 점점 희미해져 갈 거야.

7.

나는 아빠가 얼큰하게 취한 모습이 좋았어. 아빠는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만한 사탕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니. 막걸리를 사발로 연거푸 들이켜고 나면 아빠는 으레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같았지. 늘 왼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며 내 앞에 내밀었어. 아빠에겐 오른손 검지가 없었어. 한 번은 밤에 할아버지가 아빠를 업고 논두렁을 건널 때였어. 잔치에 가셨었나 봐. 그때도 술에 취하셨는지 비틀비틀 걸어가시는데 아빠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꼭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이. 휘청휘청 겨우 다 건너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지. 술에 취할 적마다 한 이야기니 나는 수백 번도 넘게 그 이야기를 들은 셈이야. 그래도 난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어. 꼭 어릴 적 아빠의 얼굴이 보여서 차마 이야기를 끊을 수 없었어.

8.

집안에는 온기가 돌지 않았어. 엄마는 불을 켜는 것을 잊은 걸까? 아니, 엄마는 불을 켜 줄 모르는 걸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둠이 드리워지는 이 집 안에 그리 계실 리가 없어. 열린 문틈 사이로 몸을 비집고 내 방으로 들어갔어. 내가 떠났을 적 모습 그대로였어. 내가 숨겨 놓은 양말도 그대로 있었어. 아직 엄마는 내 공책을 펼치지 않은 걸 거야. 그 속에 끼놓은 편지가 그대로 있었거든. 만약 그 편지를 읽는다면 엄마는 그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엄마가 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 나는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어. 거실이 환해지자 내 방은 아까보다 더 짙은 어둠에 잠겼어. 아빠가 돌아왔어.

9.

아빠는 소주를 마셨어. 벌써 몇 병째야.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리지 않았어. 아빠는 뭐라고 계속 중얼거렸어. 그리고 계속 울었어. 아빠는 자꾸만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어. 오른쪽 검지가. 몇 년 전에 사라진 그 손가락이 그렇게 아프다고 했어. 그 고통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계속 울었어. 어제도 자다가 깬어, 그놈의 거지 같은 손가락 때문에. 예전에 사라졌을 때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요즘 날이 갈수록 더 아파져. 계속, 계속. 그리고 보니 아빠의 수염이 참 많이 길었더랬지. 이제는 아무도 아빠의

수염이 따갑다고 불평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아빠는 왼손으로 뭉툭하게 밑동만 남은 오른손 검지를 꼭 쥐고 계속 울었어. 내가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10.

나는 더 집에 머무를 수 없었어.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 온 세상이 어두웠어. 속이 뜨겁고 아프고 한 것이 꼭 매운 것을 먹은 것만 같았어. 혀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매운맛이라는데 혀도 몸도 없는 나는 대체 무엇으로 매운맛을 느끼고 있을까? 무엇이 속에서 이렇게 아프게 차오르는 것일까? 나는 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걸까? 나는 집을 등진 채 걸었어. 거실에서 나오는 빛이 내 뒤로 어른거렸지만, 땅바닥에 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어. 나를 통과한 빛은 그대로 길 위에 쏟아졌어. 이승에서 나는 없는 것이었지. 이렇게 있는데도 없는 존재였지. 소리는 영혼을 통해 들어왔어. 내가 지금 듣는 울음소리가 아빠의 울음소리가 아니기를 바랐어. 아빠의 손가락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아플까. 엄마는 앞으로 얼마나 핸드폰 껐다 켜기를 반복할까. 거리의 차들은 아직도 빠르고 가로등에는 노란 불빛이 들어오고, 담벼락 위에서 길고양이가 숨죽여 울면 음식 냄새가 곳곳으로 스며드는 저녁. 세상은 이다지도 잘 돌아가는데 나의 세상은 숨이 죽었어. 참, 있지도 않은 마음이 지독히 아려오는 거 있지.

<최우수상>

푸르던*

글로벌융합대학 김 지원

가온은 오늘도 또 같은 꿈을 꾸며 일어났다. 오늘이 18일째였나, 피**부를 관통하는 시원한 감각이 심장까지 꿰뚫고 가온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두통마저 치유하는 그,, 그,.....

도무지 그게 뭔지 떠오르지 않았다. 아, 정확히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적어도 그걸 비스무리하게라도 표현할 단어가 있지 않나?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

하지만 적어도 그 꿈을 꾸는 덕분에 가온은 잠시나마 두통을 잊을 수 있었다. 부모님 말로는 어릴 때 겪은 교통사고로 칩의 일부분이 고장 났다나. 가온이 말을 더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밖은 2100년을 기념하는 동상과 LED 전광판들로 가득했다.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온 세상은 늘 반짝이고, 번뜩이고, 좀 답답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며 역시 기업체들이 나라를 운영하니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다고 칭찬했다. 정부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를 고용해 건물들, 도로, 횡단보도 등등을 디자인하게 했고, 그 덕분에 서울의 주가는 하늘을 치솟고 있었다. 솔직히 살기는 편했다. 뇌에 삽입한 칩 덕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식사를 갖다주고, 생각만 하면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정보가 전달되기도 했다.

“어 가온아 일어났니?”

“느..네.”

“가온아 밥 먹고 좀 있다가 저기 모아 AIR에서 공기 좀 사 와. 아빠가 써보니까 거기

* 본 작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버스 옥외광고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글입니다.

공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치 여보.” “맞아.....”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부모님의 수다에 가온은 집을 몰래 빠져나왔다.

‘4일 전부터 도서관을 하루종일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어.’

가온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 자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그,,,,, 그것. 그것을 찾으려 시내 중앙도서관을 몇 날 며칠을 찾아봐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닮은 형상이나 어떤 무엇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생전 책을 즐겨 읽으시던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다. 있을 거야, 적어도 오늘은 혼자 아니니 시간은 덜 걸리지 않을까,

라는 믿음과는 달리 할머니의 서재에서도 이렇다 할 수확은 없었다. 가온의 친구인 칩에 문제가 생겨 말을 하지 못하는 미르를 데려갔지만 미르도 그러한 색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시간이 너무 늦어 미르를 집에 보낸 다음 가온은 할머니께서 자주 연주하셨던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근데 피아노를 연주하려 건반을 치는 순간, 건반 몇 개가 퍽 퍽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뭐지 뒤에 뭐가 걸렸나?’

그러곤 피아노 본체 뚜껑을 열어 손을 넣어보았다. 손에 느껴지는 텅텅한 먼지 뭉치에 소름이 끼쳤다. 으으..하며 손을 빼려는 순간,

‘사그락’

분명 종이의 촉감이었다. 순간 놀라 종이를 얼른 들어 올렸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하늘은 하얀색이 아닌가? 파란은 뭐고 푸른은 뭐고 풀은 또 뭐가! 하지만 가온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꿈속에서 느꼈던 감촉과 가장 비슷한 울림이라는 것을. 파란, 푸른... 이제 단서를 찾았다. 여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들이었다.

“엄마!”

“아니 애가 공기 사라 나간 줄 알았더니 왜 여태 안 와? 너 어디야? 웬일로 말도 안 더듬고.”

“지금 할머니 댁이에요. 엄마 혹시 ‘표,,푸른’이라는 단어 알아요?”

“뭐?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표..파...”

“어 가온아 너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니? 우리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 맞아! 너 왜 안 와? 어디야?”

“...네? 할머니 댁이라니까요? 그나저나 ‘파란’이라는 단어..”

“어 가온아 너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뚝’

가온은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뚝 끊었다.

‘왜 엄마가,,ㄷ..다..다리가 미친 듯이 떨려. 아아...’

후두둑하고 악보가 떨어졌다. 악보를 주우려고 수그린 상체가 쿵 하고 무너졌다. 가온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가슴이 미어지고 머리가 다시 아팠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다. 머리가 차게 식고 손발에 땀이 맺혔다. 조금 추운 것도 같았다.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섭지, 하는 순간 무거워진 눈꺼풀이 내려앉았고 세상이 기울었다.

그 무렵,

“뭐? 금지어가 포착돼?”

“네. 서울에서 금지어 센서가 가동하여 금지어를 들은 당사자의 기억을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뭐? 전 세계인의 뇌에 칩이 심어져 있어. GPS로 칩의 위치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게 발신인의 칩 안의 센서가 고장이 났는지 작동하지 않아 위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알았어. 전문가들이랑 기계들 붙여서 요 며칠간은 그 금지어 센서에 집중해.”

‘도대체 누가, 아니 어떻게 금지어를... 설마, 그 여자가,,, 아니 그 인간은 죽었잖아?’

“조비서, 2020년생 생일은 모르겠고, 2088년 5월 15일 사망한 김 윤에 대한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

‘할머니 노래 불러주세요.’

‘할머니가 노래 불러주면 우리 손녀 잘 거야?’

‘네!’

‘좋아.’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할머니, 파란이 뭐예요?’

‘할머니가 젊었을 적엔 하늘이 파란색이었어. 그땐 몰랐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것인지를. 푸른 바다 앞에 서서 파란 하늘을 보고 있자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었고 피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 음, 마치 사각거리는 시원한 이불에 얼굴을 비비는 느낌이랄까. 할머니는 너희가 파란색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 이게 다 우리 잘못이야.’

가온아, 네가 부디 이 *푸르다* 라는 단어를 되찾아줬으면 해. 지금은 정부가 금지어로 만들어놓아서 단어가 사라졌단다.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푸르다...’

‘그래. 다시 세상을 푸르게 만들어야 해.’

/

‘헉’

가온의 눈이 번쩍 떠졌다. 땀이 범벅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

‘난, 나는 알고 있었으나 잊어버린 거야.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아 어제 할머니 서재 금고에 2030년 사전이 있었지.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칩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건가? 어제 엄마랑 통화를 할 때 푸른 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니 엄마의 기억이 초기화되었지, 하지만 나랑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어. 할머니가 칩을 심지 않으셔서 건강 악화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나는 칩이 고장 난 상태고. 이걸 칩이 있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야. 그렇다면, 미르는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

가온은 사전과 악보를 가지고 미르네 집으로 향했다. 미르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줬지만 무슨 소리인지 된통 모르겠다는 미르의 표정을 보고 얼굴을 쓸어내리는 그때,

“임가온! 임가온! 애가 대통령님이 오셨는데 도대체 어딜 간 거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였다.

“ㄷ..대통령님이 오셨다고? 설마 내가 ‘푸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것을 ㄷ..들킨 건가? 하지만 여기 있다간 ㄴ..내가 위험해지겠어. 나..나 나는 얼른 집으로 가 볼게. 대통령이 직접 찾아왔으니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기계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바뀌야 해. 미르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랑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모두 비밀이야!”

“어..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가온아! 지금 누가 오셨는지 아니?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셨어! 얼른 인사드려.”

“아..안녕하세요.”

“어 그래, 내가 임가온 학생이구나. 올해 스무 살 된 거 축하한다.”

‘별걸 다 축하하네.’ “가..감사합니다.”

“따님이 2100년 기념 해에 성인이 되었네요. 근데 따님이 말을 좀 더듬으시네요?”

“아 한 12년인가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머리를 좀 다쳤는데 그 과정에서 칩에 오류가 생겼다고 그러더군요. 마침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칩 관련하여 사망하신 김 윤 할머니 맞으신지요.”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씨익) 아닙니다....상심이 크셨겠군요. 아 지금 저희가 온 건 청소년들의 교육 방침과 생활 만족 조사를 위해 몇몇 아이들을 상대로 제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정책에 있어서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중요한 결과를 불러오죠. 따님께서 운이 좋으신 편인가 봅니다. 전국에 수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선정되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역시 대통령님이세요, 이렇게 직접 집을 방문하시다니!”

“하하, 별말씀을요. 아 잠시 따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네 그럼요! 자 가온아 얼른 안내해 드려라.”

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마치 짜여있는 각본을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말을 뱉어냈고, 그 솜씨도 유려했다. 가온은 계속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견제했다. 가온은 도대체 왜 부모님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찬양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저 인간, 일부러 칩에 세뇌기능 넣어놓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가온은 모든 게 이상했다. 하지만 직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다고 생각한 가온은 흔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2층 방으로 안내했다. 대통령이 잠시 방을 둘러보는 사이,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팬형 녹음기를 켜는 데 성공했다.

“여기구나. 자 그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나..네.”

“난 너나 상대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오..알아요.”

“좋아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 너도 날 알고 나도 널 아니 누가 더 위에 위치하였는지도 이제 20살씩이나 먹었으면 알겠고, 조사를 해보니 성적도 좋고 상도 많이 탔던데 그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벌써 파악은 끝냈을 거라고 생각하네.

훗. 보아하니 기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 애기부터 할까? 네 머릿속에는 정부에서 배부하는 칩이 들어있어. 덕분에 우리는 사람들의 사고나 경험 등을 알 수 있고, 잘하면 무엇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도 예측할 수 있지. 너도 기계를 잘 다루니 알겠지만, 참 기계는 유용하고 똑똑해. 오래전에는 사람들은 늘 토론했어, 기기가 미래에 해악이 될지, 도움이 될지. 하지만 그렇게 앉아서 토의만 하기에는 점차 지구는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인간은 기계의 힘을 얻지 못하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환경이 되었어. 사람들이 내 기계들을 사기 시작하고 여러 단체들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지. 도와달라고! 결국 나는 결심했단다. 내가 이 나라를 움직이기로 말이야.”

“ㄱ..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군요. 기계를 좋은 쪽으로 사용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뭐하러? 기업들은 당장의 생산에 미쳐 싸고 튼튼한 일회용품들을 마구 생산하고, 소비자들도 그러했지. 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이야.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 지경이 되었는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친환경, 친환경 외쳐봤자 누가 들어주거나 하겠어?

인간은 이익과 손해 앞에 냉정해. 그 달콤한 것을 놓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하지. 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네 할머니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칩을 개발한 거야.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기 위해서.”

“...”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칩이 어떻게 사용될지 아는 눈치구나. 하지만 너희 할머니

는 칩을 넣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 그 근성 하나는 높이 산다. 갖은 압박을 다 했는데도 끝까지 넣지 않았지. 아 중요한 말을 까먹고 있었네!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건데 말이야.

너 ‘푸르다’라는 단어를 찾고 있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전까지 너는 찾지 못할 거야. 사람들 속에 더 이상 푸름은 없어. 한 40년 전 더 이상 지구가 복구하기 힘들게 되자 전 세계 정부가, 정확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협약을 맺었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푸르다’라는 개념을 지우자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나무나 숲이나 강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공기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은 공기를 원하니 그걸 값을 매기고 팔 수 있게 되지. 근데 네 고장 난 칩은 금지어를 감지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렸구나. 이래서 하자 있는 애들은 안 된다니까. 그때 그 네가 죽지 않은 걸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쫓”

“ㄱ..그게 무슨 말이에요?!”

“? 아아-너 몰랐니? 이쯤이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부모님은 너희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돌아가셨고 너는 같은 해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지? 그거 내가 그런 거야. 김 윤이 금지어를 말했고, 너는 그걸 들었으니까. 너희 부모님 기억 조작이야 뭐 손가락 까딱이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거고, 머리 쪽을 칩이 고장 날 정도로 다쳤는데 죽지 않았다니, 너 정말 운이 좋구나?”

“ㄱ..그..그런 걸 우...운이라고...하진 않죠..?”

“너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이 손가락이 네 목숨을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이제 겁을 좀 먹는 게 어때? 네가 죽더라도 아무도 널 기억 못 하게 할 수도 있어. 저렇게 내 말을 찰떡같이 믿는 네 부모를 봐.”

“나..널 어떻게 할 셈이지? 죽는 건 두..두렵지만, 예상했던 일이야.”

“아닌 것 같은데. 예상 못 한 것 같은데 ㅋㅋ. 흠, 좋아. 난 널 죽이지 않을 거야.”

“ㄹ..뭐라고?”

“나도 네가 재밌어졌어. 내가 너에게 푸른 하늘과 나무, 풀들을 보여주마. 싸우더라도 공정하게 싸워야 재밌지. 이기는 맛도 있고. 가자. 조 비서, 얘 데리고 차로 가.”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나 좀 보게. 우리 공기 수목원 B-1 구역에 내려주고 자네들은 그냥

와.”

“아.. 각하께서 진심으로 보여주시려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어허 이 사람 말은 제대로 해야지. 난 보여주긴 할 거야.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교육 차원에서도 저 애한테 좋아. 하지만 아무런 수단 없이 다시 집에 오기는 힘들겠지... 후후.”

저런 더러운 인간이 자길 그냥 그곳에 보내 주리라고는 가온 또한 생각하지 않았다.

녹음본은 이미 미르에게 보낸 후였다.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다.

‘엄마, 아빠, 날 기억하지 못하게 되겠지만. 감사했어요. 꼭 다시 보러 올게요.’

그렇게 부모님의 얼굴을 담은 가온은 대통령의 차에 올라탔다.

“가온이가 어딜 가는 거죠?”

“가온이가 공장을 좀 견학하고 싶다고 하여 잠시 보여줄 생각입니다. 따님이 기계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그런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아닙니다. 미래의 인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각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각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역시 인간은 멍청해. 명령을 내리면 바로 기억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마취제
는?”

“먹였습니다. 지금 막 잠들었고요.”

“좋아. 출발해.”

/

“학생, 도착했어요.”

“제.. 제가 언제 잠들었죠?”

“출발할 때 바로요. 마음껏 둘러보시라는 각하의 지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가..감사합니다. 조 비서님.”

가온을 차에서 내려준 조 비서는 조금 미간을 찌푸리며 가온을 보내줬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에서부터 폐까지 땀 뚝리는 느낌이 들었다. 동공이 맑아지며 눈을 둘러싼 신경이 차분히 풀어지는 이러한 감각. 피부를 뚫고 지나갈 것만 같은 이

시원한 느낌.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 시원한 날 사각거리는 이불에 뺨을 부비는 그러한 감각.

늘 두통으로 지끈지끈 뜨겁던 정수리가 서늘했다. 손을 뺨어도 만질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고, 이는 가온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가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관통하여 지나갔다.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니 이 무언가가 바닥에 있는 푸른 것들을 마찰시키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꼭 눌러보니 마치 매트리스처럼 폭신하였다. 가온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가락 하나하나에 그 감각을 실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코끝을 찌르르 찌르는 살짝 알싸한 향기가 느껴졌고, 귀에는 쇠아아-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걷다 보니 갈색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원기둥 모양의 긴 형체 위에 작고 푸른 바닥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살랑살랑 귀엽게 움직였다. 가까이 가니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고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생명을 이끄는 듯한 느낌이었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

가온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정말 ‘푸른’이라는 울림에 딱 맞는 상쾌한 색깔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가슴이 일렁였다. 저기에 달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위에 몽실한 하얀색 솜사탕도 떠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모금 들이키고 싶어 손을 뺨었다.

‘사그락’하고 가온은 뒤로 넘어갔다. 넘어져 떨어지는 울림 또한 아름다웠다. 푸르고 푸른 것들이 가온을 포근히 감싸 안았다. 시원하지만 따뜻했다. 이 아름다운 감각을, 풍경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칩의 메모리를 주소록의 김미르에게 전송.”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

‘임가온 님이 메모리를 전송하였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끝]

<최우수상>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다른 삶

사회복지학과 박 승 주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결정한다. 즉,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기준을 완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준을 잣대 삼아 나의 기준과 비슷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고 그 기준에 벗어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맞지 않는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다름이란 사람들만의 고유한 기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처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여도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완벽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사회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공존으로 인해 세상에는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기준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어서 나와 비슷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멀다고 느꼈던 것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질성이 생길 부분이 없이 같이 자라왔는데 나와 다른 바로 나의 남동생 때문이었다. 내 남동생은 1999년에 태어난 연년생 동생이다. 동생과 나는 내가 기숙사 생활을 한 3년의 기간을 빼고는 같은 집에서 살아왔다. 부모님 다음으로 가까운 내 동생이 나와 왜 다를까? 동생과 내가 다른 원인을 파악하기에 앞서 내가 동생과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많은 돈이 엄마와 아빠 손에 오갔다. 부모님은 어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돈을 흔한 것으로 여길까 걱정하셔서 우리의 경제 관념을 위해 나와 동생에게 저학년 때부터 주 단위 용돈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고 용돈 기입장을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하셨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돈’에 대한 동생과 나의 기준은 매우 다르다.

나는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려는 기준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용돈을

받으면 용돈이 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갈지 매월 초에 생각해두고, 그달에 친구 생일 이라던가, 중요한 약속으로 지출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면 그달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사지 않는다. 또 여유가 있는 달이라고 해도 그것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돈이 부족한 달을 위해 용돈을 조금씩 모아두어서 여윌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또 3~4일에 한 번씩 지갑을 열어 지갑에 있는 돈이 모자라지 않은 액수인지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아직 나의 습관으로 남아있다.

반면 내 동생은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은 다음 날 돈이 있어 본 적이 적다. 즉, 용돈 받은 날 탕진을 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동생은 용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자신이 돈을 벌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생겼다고 한다. 적어도 월급을 받아서 다음 달의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자기의 교통비나 식비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성의 측면에서 나와 비슷한 수준의 계획성은 아니다. 부모님이 돈을 모아 집을 사라고 권유해서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준이 다르다. 나는 저축을 허리띠를 졸라매서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지출을 타이트하게 잡고 남은 액수를 저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여유 있는 지출을 생각하고 최소한의 저축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나와 동생은 저축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 다르다. 나의 경제 관념의 기준에서 보면 동생의 경제 관념은 바닥이다. 미래를 생각할 줄 모르는 탕진 생활의 연속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생은 자신의 현재 삶을 조금 더 즐기는 것뿐 저축을 아예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고려한다고 한다. 동생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내가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은 고리타분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여행을 앞둔 나와 동생의 모습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나의 여행은 자료수집과 계획에서부터 시작한다. 여행 일정, 여행경비, 여행 가서 사 올 물품, 여행지에서 이용할 교통수단까지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그것에 맞게 여행 일정을 결정하고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가서도 여행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여행 일정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나는 가까운 미래는 물론 5년, 10년 이후의 삶까지 미리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운다. 이런 나에게 얼마 전 동생은 충격을 주었다.

최근에 동생이 전국 일주를 혼자 가기로 결정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출발날짜가 마음먹은 2일 뒤라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어디를 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정한 것은 단 한 가지 제주도로 떠나는 항공권이라며 나에게 자랑을 했다. 제주도에서 무엇을 타고 이동할지 어디를 구경할지도 모른 채 동생은 여행을 떠났고 이후 제주도 기행에 대해 들어보니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낚싯대를 빌려서 온종일 낚시를 하고 그러다 자기가 원하는 숙소에서 잠을 잤다

고 한다.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자신의 여행을 만들어나가는 동생이 신기했다. 동생의 즉흥성은 나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똑같다. 동생은 미래를 미리 생각하기보다 그날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이 좋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예측대로 흘러가지도 않으니깐 그냥 태양이 뜨는 그 날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나의 기준에서 동생의 이러한 즉흥성은 또다시 동생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생각되게 한다. 동생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동생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지 걱정도 된다. 하지만 동생은 즉흥성을 이렇게 바라본다. 미래를 누가 알까? 미래가 예측대로 흘러간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생각에서도 우리는 다른 시각을 보인다. 나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볼지를 생각하며 세상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려고 했다. 예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항상 잘 따르며 남에게 평가되는 나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 동생은 달랐다. 내 동생은 한 번도 남의 시선을 의식한 적이 없어 보였다. 어려서부터, 백화점에서든 길 위에서든 공공장소에서 떼를 쓰며 자주 드러누웠고, 큰 예절들은 지키면서도 사소한 예절들은 동생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동생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예절만을 지키며 산다. 옷을 입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옷이 자신에게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던 입고 다닌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 나는 세상과 개인이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게 되었고, 어느덧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동생을 바라보면 통제 불능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문제아였다. 하지만 동생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다름은 감정표출의 방법에서 야기된 것일 수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애어른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하기 싫은 것들도 인내하고 내 기분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다. 정말 참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의실 안이 덥거나 추워도 나는 그냥 참았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에어컨을 켜 달라 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내심이 없다고 느낀다. 물론,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누군가의 인내심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걷기 싫어도 걷고 아파도 참는 것이 나는 대단하거나 생색낼 일이 아니라, 그냥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맥락에서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정표출을 자제했다. 그러다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표출되기는 했지만, 그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표출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좋은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걸 얻어도 그 기쁨을 격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

반면 내 동생의 감정표현은 정말 직접적이고 동시적이다. 동생은 무엇인가 자신의 상태를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곧바로 표정에 그 기분과 감정이 드러난다. 또 말하는 태도도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동생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도 너무 쉽게 표현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다.

아마 이것은 감정표현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 나는 감정표현은 되도록 이며 삼가고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고, 동생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나의 감정표출 기준에서 볼 때 동생의 감정표출 기준은 예의 없고, 성숙하지 않은 태도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항상 동생의 감정 표현을 보며 어리고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의 기준에서 본다면 나의 감정표현에 대한 기준이 자신을 너무 자제하고 억누를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한다.

나와 동생의 가장 뚜렷한 차이 중 하나는 인간관계이다. 나의 인간관계의 폭은 좁다. 그리고 관계의 정도가 깊은 편도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 몇 명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불편해 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웃음도 잃게 되고 웃더라도 정말 웃겨서 웃기보다는 웃어야 하니까 웃는 가식적인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주로 3~4명의 친구가 모이는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과 자주 만나기보다도 가끔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에게 나의 정말 사적인 정보들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가족과 관련된 것,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은 그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다. 어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인간관계는 비슷하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을 어른들과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느낀다. 어른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들에게 무례가 가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과 다른 친구들처럼 두터운 사제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선생님들이 떡볶이를 사주신다고 하셔도 나는 극구 거절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른들이 나에게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꼈다.

반면에 내 동생은 나와는 정말 반대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생의 인간관계의 폭은 정말 넓고 관계의 정도가 얕지도 깊지도 않은 동생의 기준에서 적당한 정도를 유지한다. 동생은 사람이 많은 자리든, 없는 자리든 즐길 줄 알았고, 하루라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의 매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난

다. 또 자신의 친구들과 정말 깊은 비밀까지 공유한다고 한다.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친구들과는 공유한다고 한다. 이러한 동생의 친화력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한다. 동생은 어른을 어려워하는 태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예의 없게 대하지는 않는다. 예의를 지키면서도 어른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한다. 실제로 나는 이모부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지만, 동생은 어려서부터 이모부의 무릎을 베고 눕고 이모부에게 말을 거리낌 없이 편하게 건다.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생은 두터운 사제지간을 유지한다. 내 동생이 공부를 잘 하지 않으려 하고, 호기심으로 사고도 많이 쳐서 선생님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그 어떤 선생님들과도 어려운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이처럼 동생과 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은 서로를 다르다고 인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며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된다. 동생은 항상 집에 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하고 나는 매일 밖으로 나가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어 한다. 또 동생이 어른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보기에 예의 있음과 예의 없음 사이를 위태롭게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이고, 동생은 내가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너무 격식을 차리고 높은 장벽을 쳐놓는 것처럼 본다.

이처럼 나와 동생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와 동생은 같은 환경과 같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기준들을 갖게 된 것일까?

원인을 알기 위해 나는 부모님께 위와 같은 기준들에 대해 우리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쭙어봤고 그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나와 동생의 기준은 어렸을 때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그 기준이 서로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덧붙여, 동생의 기준은 부모님의 기준과도 많이 다르다고 하셨다. 동생이 자라면서 부모님과 정반대의 기준에 의한 행동과 태도로 부모님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시고 화가 나셨다고 했다. “왜 저 아이 혼자만 다를까?”,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많으셨다고 한다. 더욱이 동생의 기준들은 사회에서 비판받기 쉬운 기준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동생의 기준을 변화가 꼭 필요하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생이 부모님과 다른 기준의 행동들을 할 때마다 동생을 혼내고, 부모님 기준의 틀에 맞게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셨다고 했다. 하지만 동생의 이러한 행동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부모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지자, 부모님은 동생을 이해해보기로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성격유형 검사도 시키고, 부모교육도 받아보고, 미술 심리치료도 진행하면서 동생의 기준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부모님은 자식(동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마음을 터득하셨다고 한다.

부모님과 면담을 하다 보니, 나는 동생의 다른 삶의 방식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동생의 기준들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라고 정의하는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기성세대들에게 동생의 기준은 미덕에 알맞지 않은 것, 게으르고 책임

없는 자세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의 삶에서 동생이 선택한 행동과 태도들이 사회 혹은 타인에게 환영받았을 일이 적었을 것이다. 항상 동생은 꾸지람을 듣고, 혼나고, 반성하라는 말만 들었을 것이다. 반면 나의 기준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지향 받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 행동과 태도에 대한 칭찬과 지지들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에서 나와 동생을 다르게 대하였고, 각자에게 다른 평가들을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적 작았던 다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동생과 나의 각각의 기준을 확연히 다른 다름으로 고착화시키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기준의 확립은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데 기여한 것이다.

심지어는 나와 동생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님조차 사회적 기준에 가까운 기준을 가진 분들이다 보니까 동생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타인에게 인정받고 지지받는 일이 드물었을 것이다. 동생처럼 사회의 지향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회의 비난을 받았을 때, 그 기준을 바꾸기도 하겠지만 내 동생은 사회적 지지가 적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킨 것이고, 이러한 점들이 동생과 나의 기준들을 더 극명하게 나누는 원인이 된 것 같다.

아직 우리의 사회는 나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보다는 배척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비슷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 삶의 방식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사회는 이를 만연하게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상황에 사는 동생은 나와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동생의 행동과 태도를 보며 동생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나의 기준들이 세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기준과도 더 잘 부합했기에 나는 더 당당히 이러한 생각을 했었고 동생의 다른 기준을 어리석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동생을 무시했다.

성장을 하면서 세상의 다양성을 배우고 세상이 꼭 이분법적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나와 다른 기준에 대해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생에게는 그런 이해를 잘 실천하지 못했다. 여전히 동생의 기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내면에는 사회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동생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있었던 것 같다.

에세이를 쓰며 나의 기준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동생의 기준에 비해 나의 기준이 훨씬 더 바람직하거나 알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차이로 인한 다름일 뿐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때때로는 그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를 형성하면서 나와 타인을 구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타인을 동질화시킨다. 나의 기준은 나와 내가 속하는 '우리'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동생은 이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동생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다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평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형성하면서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것들을 배척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폐쇄된 '우리'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실천을 평가하지 말고 나 먼저 나에게 가장 가까운 동생을 먼저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해와 수용은 다르다. 나는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만날 다양한 사람들과 삶들을 이해를 뛰어넘은 수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와 가까운 동생을 수용해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나와 다른 타인의 삶이나 태도를 이해하기는 해봤어도 수용해 본 적은 없던 나이기에 나의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 같다.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에 의한 다양성을 포용(수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문화와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수상>

수취인불명 우편입니다. 반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융합대학 김 별

첫 번째 편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별이에요. 할머니께 꼭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오랜만에 할머니께 쓰는 편지라 어색하기도 해요. 할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보다 훨씬 많이 사랑해요. 자주 편지할게요. 보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적어둘게요. 사랑해요. 손녀딸 별이.”

한 줄이 넘어가는 길이로는 할머니께 쓴 첫 손편지였다.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처럼 간단한 카드는 꾸준히 썼다. 하지만 할머니가 글을 어려워하신다는 걸 알고 난 후에는 그마저도 그만두었다. 나는 말보다 글이 편한 사람이라 얼굴을 보고 전하지 못한 마음은 글로 전하는 게 더 쉬웠지만, 할머니께는 꼭 수다쟁이처럼 굴었다. 처음에는 말로 마음을 전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눈도 잘 맞추지 못하고 말을 내뱉는 모양새가 꼭 짝사랑하던 아이에게 고백하는 꼴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꼴이 꽤 마음에 들어서, 기꺼이 짝사랑하는 역할을 맡았다.

짝사랑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항상 마음을 졸이게 만든다.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전하지 못한 마음을 껴안고 살아간다. 나는 할머니께 감히 사랑이라 말하고 싶었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결코 자비롭지 않았다. 평생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갈 운명을 선고받는다. 나는 그 운명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인다. 사랑하지 않는 법을 모르기에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제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편지에 담는다. 끝내 부치지 못할 편지에 마음을 가득 담는다. 돌아오는 계절마다, 널려있는 할머니의 흔적과 마주할 때마다, 가끔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결국 무너져가면서도 편지를 쓴다. 이 글에도 편지를 담는다. 이렇게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두 번째 편지, 4월의 완전한 봄을 한가득 담아

“할머니, 집 앞마당에 민들레가 한가득 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민들레가 흠씨를 품으면, 그 흠씨를 열심히 불어서 멀리멀리 보내줬는데. 할머니가 그 흠씨를 저한테 불어서 머리카락에 민들레 흠씨가 한가득 붙었었잖아요. 그 민들레 흠씨는 향기가 없을 텐데, 이상하게 향기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민들레만 보면 그때 맡은 향기가 나요. 할머니, 혹시라도 근처에서 민들레 흠씨가 날리면 제가 예쁜 조화를 가득 사서 놀러가는 줄 아셔야 해요. 아셨죠? 예쁜 조화를 사 들고, 민들레 흠씨 후후 불면서 갈게요. 마중은 마음으로만 나오세요. 제가 할머니 만나러 빠르게 뛰어갈게요. 그리고 가끔은 조화 말고 향기 나는 생화도 가져갈게요. 할머니는 생화보다 조화가 더 좋다고 하셨죠? 맡은 조화가 더 좋다 하셨어도 제가 꽃을 한 움큼 선물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화사하게 미소를 지으셨는데요. 할머니는 모르실 거야. 그 웃음이 얼마나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는지. 제가 선물한 꽃이 시든 후에도 오래도록 화병에 꽂혀있던 걸 기억해요. 그때, 그 꽃을 잘 말려둘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지금도 그 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할머니는 증조할머니께 선물할 꽃을 살 때, 항상 조화를 사셨다. 처음에는 생화를 사셨는데, 다음에 증조할머니를 찾아뵈실 때 꽃이 시들어있는 게 마음에 걸리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식당일 때문에 산에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증조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는 게 어려우셨다. 그래서 선물한 꽃이 시들기 전에 다른 꽃으로 바꿔드리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조화를 사기 시작하셨다. 조화는 시들지 않고 항상 예쁘게 피어있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드세게 불어도 화사하게 피어있다고. 그래서 나도 할머니를 따라 시들지 않는 조화를 사기 시작했다. 다시 할머니를 만나 뵈러 갈 때까지, 다시 화사한 꽃을 들고 갈 때까지 시들지 말라고 말이다. 어릴 때의 나는 향기로운 생화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굳이 할머니를 찾아뵈지 않을 때도 조화를 사곤 한다.

할머니는 백숙 전문 식당의 주방장이자 사장님이셨다. 그래서 나는 사시사철 언제나 백숙을 먹을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집 백숙에 익숙해져서인지 다른 집 백숙은 성에 안 찼다. 할머니는 식당 장사가 힘들다고 욕하시면서도 식당을 열심히 보살피셨다. 백숙에 들어갈 닭을 직접 기르셨고, 농사도 지으셨다. 이틀에 한 번꼴로 새로운 반찬을 만드셨고, 김장은 두 계절에 한 번씩 했는데 뒷마당 가득 배추로 탑을 쌓을 정도였다. 그 김장은 가족 모두가 동원되어도 하루로는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손이 부족함에도 내게 김장을 시키지 않으셨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도,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심지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할머니는 절대 나에게 김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장하는 날에 내가 하는 일은 그저 할머니가 김장김치에 싸주시는 보쌈 고기를 받아먹는 것이 전부였다.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듯 할머니는 내 입이 벌 틈을 주지 않으셨다. 한번은 할머니께 나도 김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너는 손발이 차서 김장하면 손이 얼음장이 되어버릴거. 나중에 손발이 할미만큼 따뜻해지면 그때 할미 옆에서 김장 혀. 할아버지가 해준 보약은 잘 먹고 있제?”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김장을 했다. 김장은 할머니의 걱정대로였다. 배추는 차고 바람도 차고 내 손도 찼다. 손은 바쁘는데 입은 비었고 배는 허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김장을 했다. 할머니가 흥얼거리시던 노랫말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틀어두신 트로트만 이따금 적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우리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다. 다들 참고 있었다. 티가 나는 순간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다른 이의 눈물에 동요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저 할머니가 보고 싶을 뿐이었다.

세 번째 편지, 나는 죽어서도 당신을 영영 그리워하겠지

“ 할머니! 요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핑계지만, 한창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더 늦기 전에 안부를 전하고 싶어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찾아왔어요. 요즘에는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용돈도 주시고요. 공부에 집중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좋아요. 머리를 헤집던 고민도,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생각들도 다 없어져요. 가끔 죽음을 꿈꾸지만, 그뿐이에요. 때로는 할머니께 쌓인 죄송한 마음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걸 느껴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미워했던 순간들이 스쳐 가요. 핑계를 대며 할머니를 보러 가지 않았던 날들이 떠올라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나면, 저는 어쩐지 울고 싶어져요. 할머니, 어쩌면 저는 숨이 다했을 때, 할머니가 계시는 천국에 가겠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도 만날 수 없겠죠. ”

나는 공부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했었다. 동생들 없이 나랑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었다. 이렇게 셋이서만 붙어있던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대껴 잘 수 있어서 좋았다. 등 아래의 온돌보다 서로의 체온이 더 따듯했다. 올라가는 입꼬리는 숨길 생각도 못 했다.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임에서 술을 드시고 오신 적이 있었다. 그날 할머니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꽤 취한 상태로 돌아오셨다. 그날은 할머니 식당에 엄마가 오래 남아있었는데, 할머니가 붉어진 볼로 헤벌쭙 웃으시는 걸 보고 엄마랑 나는 깔깔대며 웃었다. 술에 취한 할머니는 식당 문을 열고 난로 앞에 앉아있는 나에게 다가오셨다. 나는 할머니께 ‘할머니 취했어?’

따위의 말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셔서 내 얼굴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춰주셨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리고는 나를 빈틈없이 꼭 껴안아 주셨다. 나는 당황해서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지만, 할머니를 꼬옥 마주 안아 드렸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나는 기꺼이 녹아내렸다.

고등학생이 되고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찾아뵙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끌어다가 썼다. 참고로 나는 양가 모두에서 장손이다. 애교를 품어본 적이 없는 손주였다. 애교를 부릴 때면 주먹을 꼭 쥐고 혀를 깨물었다. 그걸 몇 번 하니까면역이 생겼다. 애교가 아무렇지 않은 게 신기했다. 지금은 그 면역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 일주일의 추억은 아직도 내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남아있다. 집에서 챙겨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거실에 누워서 사진을 찍었다. 그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열 장 정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내 보물상자에 잘 들어있다. 흑여 사진을 잃어버릴까, 사진이 바랄까 많이 꺼내 보지는 않는다. 그냥 가끔 사진을 들고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 그 사진들은 셋 다 귀여운 표정으로 찍혀서 나를 마주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기억하고 싶은 추억이라서 이따금 잊지 않으려 들춰보곤 한다.

네 번째 편지, 다정한 온기를 잃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마음을 꼭 껴안고

“할머니! 저는 요즘 막내한테 한글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일모레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받침 글씨가 어려운가 봐요. 사실 저는 할머니랑 같이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6.25 전쟁을 겪으시면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날 이후로 할머니랑 한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할머니께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제가 더는 편지를 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편지를 아예 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편지를 쓰고 조용히 마음에 넣어뒀어요. 그 편지들은 아직도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편지를 찾아보셔요. 제가 열심히 읽어뒀으니까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편지를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참, 할머니! 벌써 제 목소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지요?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도, 미장원 냄새 가득한 파마머리도, 선크림도 바르지 않는 민얼굴도, 다 기억해요. 가끔 할머니 생각이 짙어질 때면, 핸드폰에 있는 할머니 자장가를 들어요. 할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가 불러주신 자장가를 몰래 간직했다는 걸요. 징그러울 만치 다 컸는데도 다정히 제 등을 두드리며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저는 꼭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잠 잘한 일 같아요. 지금도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이 토닥임을 느끼며,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장 자장 우리 별이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깼라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깼라 자장 자장 우리 별이 자장 자장 잘도 잔다 … ’

나는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내쉬며 잠든 척을 했다. 혹시라도 할머니의 손길이 끊길까 봐 깊이 잠들지 않은 척 뒤척이기도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을 더 오래 받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욕심냈어도 좋았을 것 같다. 그랬다면 할머니는 내가 자는 척한다는 걸 눈치채시고 슬며시 볼에 입술을 스쳐주셨을 텐데.

살가운 할머니, 애교 많은 손녀딸이 아니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해주셨다. 새우잠을 자는 나를 보고 내 새끼 자는 꼴이 안쓰럽다며 잠든 내 다리를 조용히 펴주기도 하셨고, 바닥을 더 뜨뜻하게 데워주시기도 하셨다. 그것 말고도 낮잠을 자는 내 몸 위로 덮인 겨울 이불이라던지, 책상 위에서 잠든 내 얼굴을 조심히 매만지는 투박한 손의 감촉이라던지, 교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꾸깃꾸깃한 초록색 지폐라던지. 할머니는 나를 조용히 사랑해주셨다. 기척도 없이, 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일까. 할머니의 사랑은 어느샌가 나의 일부처럼 깊숙이 스며들었다. 조용히 사랑받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빠져나간 내 마음은 무게를 잃어 중심을 잡지 못했다. 할머니의 사랑이 빠져나갔다고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 감히 다른 사랑으로 채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그대로 두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할머니 사랑의 빈자리가, 그 무게가 영영 채워지지 않을 걸 알기에, 그냥 마음이 조금 빈 채로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편지, 우리 엄마의 우리 엄마

“ 할머니! 오늘은 엄마의 생신이에요! 할머니, 울 엄마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머니가 엄마를 낳아주신 덕분에 제가 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엄마 생신에 내가 직접 미역국을 끓였다. 예상했던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마침내 정성뿐만 아니라 조미료까지 과다투여된 음식이 완성됐다. 차마 할머니의 미역국 맛을 따라 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손맛이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할머니가 끓여주신 닭 미역국이다.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이실 때마다 매번 닭 미역국을 하셨는데, 그 국물이 장난 없다. 상상만으로 침이

고이는 자태와 향은 순식간에 밥 두 공기를 똑딱 비우게 만든다. 아쉽게도 우리 어머니나 삼촌은 할머니의 손맛을 닮지 못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일이 다가올 때면 항상 할머니의 닭 미역국이 떠오른다. 꿈에서라도 맛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꿈에서조차 쉽지 않은 일이 있었다.

우리 집에서 할머니는 한식의 대가였다. 봄이면 화전이나 도다리썩국, 여름에는 콩국수, 가을에는 능이버섯이나 전어구이, 겨울에는 꽃감과 팔죽을 만들어주셨다. 최상급의 재료들로 만들어주신 제철 음식을 먹으며 우리 식구는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랐다.

지금 떠오르는 할머니 표 음식은 도토리묵이다. 할머니는 항상 도토리묵을 직접 만드셨다. 나는 한두 번 정도 할머니가 도토리묵을 만드시는 걸 본 적이 있다. 도토리묵은 절대 만들기 쉬운 음식이 아니다. 도토리를 잘 말려서 빵고, 도토리 가루와 물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끓여줘야 한다. 가장 힘든 과정은 도토리 가루와 물을 섞은 것을 끓이는 것이다. 끓이는 과정에서 꾸덕꾸덕한 상태의 도토리묵이 냄비 바닥에 눌러붙을 수 있어서 계속 저어줘야 한다. 그래서 팔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식구들이 잘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묵을 자주 만드신다.

나는 집에서 별명이 '묵 청소기'일 정도로 할머니의 도토리묵을 좋아한다. 할머니가 한번 도토리묵을 쫄이면 그 묵은 대부분 내 배로 들어온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도토리묵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매운 양념도 맛있고, 간장양념도 맛있다. 그냥 다 맛있다. 마법의 묵이다. 할머니는 내가 묵을 잘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내가 묵을 더 지나치게 먹기도 한다. 할머니는 잘 먹는 손주가 예쁘고, 손주는 할머니의 미소를 좋아한다. 내가 배 터질 만큼 묵을 먹는 이유는 이걸로 충분하다.

흐드러지게 핀 꽃에서 꽃비가 내리던 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생신은 푸른 여름이셨는데, 뭐가 그리 급하신지 한 달을 조금 남기고 미련 없이 올라가셨다. 한평생 맞아온 생일이 지겨우셨던 걸까. 우리는 예고도 없이 마음 정리를 선고받았다. 어찌 되었든 마음은 추슬러야 했고, 일상을 살아내야 했다. 할머니가 없다고 인생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 되었다.

할머니께 온전히 마음을 다 내주었던 엄마는 생각보다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났다. 나는 내숭쟁이라 할머니께 마음을 다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마음이 끓아 더 오래 앓았다.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을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동물원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처럼 이리저리 길을 헤맸다.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싶지도 않았고, 버리기는 더더욱 싫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잠시 편지에 담아두기로 했다. 할머니께 이러쿵저러쿵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문제기는 해도 손이 아플 뿐 내 마음은 한 없이 가벼워진다. 글이 아닌 마음으로 쓴 편지들도 많다. 글로 써내기가 벅찬 감정들은 조용히 마음으로 써 내린다.

벌써 편지를 제법 많이 썼다. 입을 열지 않았던 시간 동안 꾸준히 편지를 쓰고, 꾸준히 마음을 담았다. 지금은 일기처럼 편지를 쓴다. 하루하루 전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 알아놓기 전에 편지에 마음을 담는다. 전하지 못한 마음이 편지로 보내진다. 그런데도, 마음을 담은 편지가 있는데도, 마음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건 변함이 없다.

지난봄 이후,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말에서 글로 돌아갔다. 더는 참새처럼 조잘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조잘댔는지 이제는 글이 어색할 지경이다. 입을 닫고 글을 쓰는 동안 충분히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러면서 말로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따스했는지, 그 온도가 얼마나 빨리 전해졌는지 깨달았다. 일 년이 지나 돌아올 봄에는 다시 입을 열어보려 한다. 이 글이 내 입을 여는 대본이 되어줄 것이다. 이젠 다시 입으로 마음을 전할 시간이다.

뚝뚝 떨어지는 미련을 이기지 못하고 보낸 몇 개의 편지는 수취인불명으로 우체국 보관함으로 가겠지만, 편지에 담긴 나의 진심은 할머니께 도착했으리라 생각한다. 마음을 전달한 편지는 할 일을 다 해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껍데기뿐인 편지는 마음을 전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이다. 마음이 전해졌다 한들 답장은 오지 않는다. 아마 답장은 하늘 우체국 보관함에 쌓여있으리라. 내가 머지않은 미래에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 그 보관함에서 먼지가 케케묵은 답신 뭉치를 찾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머니의 마음을, 편지에 담긴 사랑을 찾아서 비어버린 나의 마음을 채우면 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잡을 것이다.

<우수상>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회계학과 안 혜 림

2020년 3월. 21세기의 때아닌 역병으로, 7년의 서울살이를 하다 반강제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돌아와 버렸다. 편의점도, 아니 하다못해 슈퍼 하나 걸어서 가지 못하는 공전리에. 근처에 시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20년 전 폐교된 학교와 5시 30분이면 문을 닫는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휴가를 내시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다. 난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그래도 내가 태어난 94년도 전후로는 슈퍼도 있었다. 또 사람도 그만큼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있어 어린 시절 동네엔 또래들이 있었다. 물론 많진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명, 한 명 어디에 사는 누구의 자식인지까지 읊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이었다. 위아래로 5살 정도까진 서로 모여서 놀 수 있는 분위기였고, 근방 몇 킬로미터 이내의 또래 열 명은 종종 모여 놀곤 했다.

근방 몇 킬로미터라는 표현을 쓰니, 문득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여의도의 N배 크기”라는 비유법이 떠올랐다. 서울에 올라가기 전까진 여의도가 지명인지도 몰랐지 뭐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의도의 몇 배 크기라 설명한들, 그 크기를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강원도에 불이 나도, 충청도에 불이 나도 왜 여의도의 크기를 빗대 면적을 설명하는 걸까?

위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언니오빠를 따라 일찍 유치원에 다닌 나는 그래도 폐교된 그 학교의 유치원에 몇 개월가량은 다녀보았다. 엄마아빠는 바빴고, 나는 동갑인 친구가 동네에 한 명도 없었다. 다 같이 모여서 놀 때야 언니와 오빠가 있으니, 나를 끼워주지만 그 어린 시절 한 살, 한 살이 중요한 시기에, 동갑 친구가 없으면 그냥 혼자 유치원에 다녀야 했다. 그 시절 유치원에는 바쁜 부모님들을 위한 오후반이란 개념은 있을 리가 만무했고, 언니 오빠는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미 고학년이었기에 나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학교를 마쳤다. 유치원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엔 평생을 그 집 마당에 묶여 하루 종일 짓기만 하는 검은색 진돗개가 있었고, 그 앞엔 내 작은 보폭보다 넓은 간격으로, 개천에 아무 울퉁불퉁한 돌이나 갖다 놓은 “돌”다리가 있었다. 그 모든 게 5살의 나에겐 너무 무서웠고, 하천을 지날 용기가 없어 기약 없이 하천 앞에 앉아 언니오빠를 기다리곤 했다. 내가 앉아 기다리는 자리에 뱀이 따리를 틀고 별을 찌고 있을 땐 울며 겨자 먹기로 한참을 돌아가야 나오는 시멘트 다리를 건너야 했다.

대학에 들어와 첫 1년 기숙사를 살았을 때, 우이천을 종종 산책하곤 했는데, 그곳에 있는 돌다리는 정말 말 그대로 돌 “다리”여서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난다. 어린아이 한 명쯤은 잡들 수 있는 평평하고 넓고 큰 돌이 작은 보폭의 사람들도 건널 수 있게 놓여진 정갈한 돌다리. 개울은 넓고 얇은데 전방 몇 미터마다 다리가, 도로가 놓여 있어 꼭 필요하단 생각이 들지도 않았는데 정말 예쁘게도 놓여져 있었다. 공전리엔 그런 돌다리가, 아니 전방 몇 미터의 다리는 꿈도 못 꿀 텐데 말이다. 도시에 사는 이들은, 다리를 건너기가 무서워 집에 가지 못해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다 길거리에서 잠들어본 적이 있을까? 부모님은 언니오빠 기다리다 지쳐 길거리에서 잠든 5살의 내가 귀여웠다며 종종 회상하곤 하시지만, 우이천의 돌다리를 본 뒤로 난 그때의 내가 어쩐지 씁쓸하다.

돌다리를 못 건너게 되면 한참을 돌고 돌아 시멘트 다리로 건너게 되는데, 5살의 나에겐 너무 먼 거리여서 난 그 다리로 가는 길이 싫었다. 그 다리는 양옆에 울타리도 없이 정말 덩그러니 시멘트만 놓여진 다리였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그 다리에서 떨어졌다. 머리의 뼈가 부서졌고, 하루에 버스가 2-3시간 간격으로 7번만 다니는 공전리의 사십여 가구 중 우리 집은 운이 좋게도 차가 있는 집이어서 난 제때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제천시의 가장 큰 병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치료할 여력이 안 돼, 다른 지역의 더 큰 기독교병원까지 앰블런스로 실려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한 시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 5분만 늦었으면 부서진 머리뼈가 뇌를 파고들어 양손과 양다리를 못 쓰게 됐을 텐데. 그렇게 아이가 떨어져 죽을 고비를 넘긴 다리였어도 당시에 그 어떤 논란도 생기지 않았다. 그냥 동네에서 소소하게 저 집 애가 죽을 뻔했다네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학교에선 그냥 내 머리를 만지지 말라는 담임 선생님의 당부가 있었을 뿐이다. 나는 한동안 뻑뻑이로 지냈고 그때의 사진들 속의 나는 각양각색의 모자를 쓰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다. 공전리에선 다리에 울타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잘못 탄 게 문제였다. 그렇지만 그 다리는 우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였다. 그냥 내가 위험한 곳에 사는 게 잘못이었을까?

이송된 대학병원에선 의사가 수술이 잘되면 팔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고, 잘 안 되면 죽는 거라는 설명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고 부모님은 실신 직전까지 우시며 10시간을 수술실 문 앞에서 좌인이 되어 무릎을 꿇고 기다리셨다. 10살 짜리의 몸으로 10시간의 전신마취를 이겨낸 것도 모자라, 수술까지 기적적으로 성공한 나는 얼마간의 절대 안정 후에 사지 멀쩡하게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내가 떨어진 그 다리를 지났다. 내가 떨어진 자국이 그대로 있는 울타리가 없는 다리. 그 뒤에도 난 그냥 그 다리를 건너며 몇 년을 학교에 다녔다.

아마 내가 22살쯤, 그 다리에 울타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12년쯤 뒤에 다리가 고쳐졌다. 여전히 머리 한쪽에 뼈가 없는 나는 그 다리를 보며 지금이라도 다리가 바뀌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꽤 명석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머리의 뼈 일부를 잃었지만, 또래에 비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다. 그래봤자,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 놀 곳이 없어 방황하는 시골 어린이였지만. 방과 후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학교 근처 어딘가에 가서 방황하며 아이들과 놀거나, 도서관에 남아 책을 읽는 것.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똑똑해서 미래를 대비하여 책을 읽은 건 아니었다. 그냥 친하던 친구가 딱 한 명뿐이었는데 그 친구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나도 따라갔을 뿐이었다. 그게 정말 운이 좋은 선택이었던 걸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한참이나 뒤에 깨달았다. 영화를 볼 수도, 공연을 볼 수도, 그렇다고 마음껏 컴퓨터를 할 수도 없는 그 시골에서의 내가 도서관을 선택한 덕에, 우이천의 크고 정갈한 돌다리와 공전리의 돌다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시골에서 한평생 나고 자란 아버지는 그래도 시골 분치고는 깨어 있으신 편이었다. 성별의 차이 없이 우리들을 공부시키셨고, 대학에 보내셨다. 아버지의 동네 친구는 우리 언니와 동갑인 딸을 두셨는데 딸이 대학을 가서 뭐 하나며 인문계고등학교 진학까지 반대하셨다. 동네 사람들은 고지식하다고 혀를 끌끌 찼지만 내심 그 의견에는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여자가 많이 배워봤자지.” 그런 동네 분위기 속에서 언니와 나의 성공을 바라셨던 아버지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은 내가 떨어져 죽을 뻔한 그 시멘트 다리마저 없었을 시기에 공전리에서 봉양읍, 제천시까지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받아 가며 서울의 대학까지 나오셨고, 알아주는 기업을 다니시다 자기 사업까지 갖게 되신 분이셨다. 아버지는 그런 남동생을 보며, 공부를 잘하면 이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지만, 애석하게도 한계는 있었다. 딸들을, 아들을, 시내의 학원에 보내고 싶었던 어머니는 “진짜로 될 아이들이라면 학원 같은 건 필요 없다. 내 남동생을 보아라.”라는 아버지의 주장에 가로막혀 보내지 못했고, 오빠, 언니, 그리고 나는 공부에 관련된 학원은 한 군데도 다니지 못했다. 그나마 나는 막내로 예뻐 받아 피아노학원쯤은 다닐 수 있었고, 내가 피아노학원을 다닌다는 게 알려지자 공전리에서 우리 엄마는 유난 떠는 엄마가 되었다. 아버진 당연히 탐탁지 않아 하셨고 매일 어머니를 들들 볶았다. 그런데 정작, “학원 같은 건 필요 없다.”의 증거가 되는 작은 아버지의 자식들은 강남 유명 학원에 다녀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10시에 집에 돌아왔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촌 동생들을 보며 늘 자유가 없다고 불쌍하다고 하셨다. 나도 어릴 땐 그런 줄로만 알고, 사촌 동생들이 불쌍하다고만 여겼다. 그때 그랬다.

내가 떨어진 다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걸 의아하게 여기는 동생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학교가 끝나면 공전리가 아닌, 봉양읍도 아닌, 그때 당시 제천시에도 없는 플롯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었는데, 수많은 학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었는데, 주마다 영화와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는 아이들이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나면 해외 여행쯤은 가쁘히 다녀오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공전리에 사는 내가 그네들이 자유가 없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다. 정작 내 자유는 한 뼘 책 속에만 존재하는 줄 모르고, 문화가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지 모르고. 울타리도

없는 시멘트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시골 애는 주제넘게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나름 성실하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제천 시내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겼고, 7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 버스를 타고 등하교할 필요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덕성에 붙어 상경하게 됐다. 스물한 살이 돼서야 나는 여의도의 몇 배라는 뉴스의 말을 이해하게 됐고, 문화생활이라는 걸 알게 됐다. 공전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한 일들이 순식간에 체화가 되었다. 공전리에 살던 나는 “시내”에 갈 때마다 들뜨곤 했는데, 서울에선 시내라는 말조차 없었다. 물론, “읍내”는 국어 교과서의 한국 현대문학에서나 나오는 말이었다. 그래도 고등학교 댄 면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었고, 제천시 옆 단양군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편한 것은 쉽게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내게 본가인 공전리는 불편한 곳이 되었다. 주말이면 본가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 곳곳을 구경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문화생활을 즐겼다. 서울엔 딱히 돈이 필요하지 않은 문화생활이 많았다. 전시회도, 박물관도, 연극도, 영화도 실컷 보며 내 취향을 알게 됐다. 이 많은 전시회장과 박물관과 극장은 왜 서울에만 있는지 누군가가 원망스러웠다.

학년이 올라가며 동기들은 슬슬 알바를 해 여행을 다니고, 휴학을 하면 시험 준비와 각종 여가생활을 즐겼다.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가난한 시골 분들인 부모님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분들이셨다. 휴학을 해서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걸 찾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분들이셨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 나와 함께 동네에서 뛰어다니던 또래 아이들 중 대학에 간 사람은 절반, 그중 4년제 대학인 사람은 또 절반, 그리고 서울로 대학에 온 건 나 하나였으니까. 부모님이 원망스럽진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딸을 재수까지 시켜, 이미 동네에서 유난스러운 부모가 되었는데도 날 열심히 지원해주셨으니까. 이곳에 오게 된 건 정말 부모님 덕이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알바를 하고 돈을 모아, 하고 싶은 걸 하니, 나도 그러면 될 줄 알았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휴학을 해서 돈을 벌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겠다. 돈은 알아서 벌겠다.” 당당히 선언하고 휴학을 했다.

그런데 난 동기들과 달랐다. 그냥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걸 몰랐다. 공전리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 서울엔 집이 없다. 그래서 서울에 월세를 내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월세와 생활비가 되었다. 휴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모은 것은 여행을 다니기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었다. 한 학기 등록금조차 될 수 없는 그런 돈이 1년 만에 모였다. 공전리에 사는 나와, 서울에 사는 동기들의 “부모님 도움 없이”의 기준은 터무니없이 달랐다. 얼마간의 절망 후, 나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공전리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인 공부를 선택했다.

다행히 언니와 오빠는 자리 잡은 상태였고, 우리 집 막내 하나는 전문직이 되게 해 보자는 가족들의 지지로 공부에 돌입했다. 공부를 신속히 끝내려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혼자 공부하는 인터넷 강의보다 현장 강의를 낫겠다고 판단해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물론 학원은 서울에만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국 통틀어 회계사 학원은 서울뿐이었다. 1년간 높은 부모님의 등에 업혀 잠을 줄이고 건강을 해치며 공부를 했지만 2020년 2월, 나는 보기 좋게 떨어졌다.

재시험을 앞두고, 졸업을 위해 복학 신청을 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강의를 열리지 않았고, 학원가도 문을 닫았다. 1년간 힘들었으니, 2020년 3월, 이 기회에 머리라도 식힐 겸 공전리에서 개강 전까지 지내기로 하고 내려왔다. 미래를 고민하고, 직업을 선택할 시기에 공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심신의 안정만을 목적으로 온 공전리는 꽤나 괜찮은 곳이었다. 서울은 항상 시끄러워 자다가 깨는 일이 빈번했는데 시골은 정말 조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집 할아버지가,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돌아가시는 분은 속속들이 생기는데 들어오는 가구는 없어, 마을은 항상 적막했고 나는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코로나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던 4월의 어느 날, 학교 커뮤니티에 우후죽순으로 지방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지방과 서울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다를 수가 있냐.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는 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었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걸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단 논조의 말도 오고 갔다.

땀글을 달고 싶었다. 설명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지난 27년간 느낀 이 간극을 나는 그 짧은 땀글 란에 설명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냥 한동안 멍하니 그 돌다리를 생각했다. 내가 떨어진 시멘트 다리를 생각했다. 스쿨버스를 기다릴 때, 동네의 오빠들이 “여기서 너 떨어졌었지.”라며 다리 한 칸이 자전거에 긁힌 자국을 보며 웃던 것을 생각했다. 사촌 동생들에겐 자유가 없다며 불쌍히 여겼던 나를 생각했다. 학교가 끝난 뒤 갈 곳이 없어 아파트 그늘진 곳에서 시간을 때우던 우리 동네 사람들을 생각했다.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가는 5시 20분 버스를 놓치면 7시 40분 버스를 타야 했다. 부모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하고, 부모님은 “넌 애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며 혼나면서 돌아오던 길을 생각했다. 사촌 동생이 서울의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배운다며 불던 플루트를 생각했다. 전교에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딸랑 나 하나밖에 없어 가창 수행평가 시간에 반주를 하던 게 뿌듯했던 나를 생각했다. 정말 어느 거 하나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설명한들 ‘그럼 인강을 들으면 되잖아?’라고 하는 그들은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

이번 학기 수강 중 전 세계 나라의 경쟁력 순위를 조사한 수업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프라를 포함한 12개의 항목이 있었다. 한국은 13위였다. 법, 규제, 행정력, 시장, 노동시장, 기업의 역동성 등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구축된 인프라가 한국의 경쟁력을 13위로 격상시켰다. 우수한 인프라는 우수한 인재를 탄생시켰고, 그로 IT와 같은 기술집약적 사업이 발달했다. 인프라는 경쟁력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인프라는 서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 그 인프라의 차이는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 우리의 미래에 계속해서 차이를 낳고 있다. 그 인프라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간 격차가 없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쓰던 학우의 아버지의 고향도 어찌면 지방일지 모른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의 세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듯, 시골에서도 공부를 해 서울로 상경하는 이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차별에 대해 끊임 없이 언급했다. 덕분에 시골의 학교에서도 방과 후 활동이라는 게 생겼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져 갔고, 점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드물어졌다. 이제 개천엔, 시골엔, “용”은 커녕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돈과 학벌로 경쟁하는 사회에서 나와 같이 지방의 격차를 뚫고, 학업에 정진하여 대학을 진학하는 이들이 줄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책은 ‘한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라 이런 간극 같은 건 숫자로나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겠지. 이 간극은 더 커질 것이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더욱 줄겠지. 이 차별은 평생 해결되지 못한 채 이젠 보이지 않는 저 밑 어딘가로 숨어버릴 것만 같다.

이제, 나처럼 공전리에서 대학에 갈 아이는 없다. 아예 아이가 없으니까. 공전리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리에서, 읍에서, 면에서, 대학에 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 내가 겪은 이 간극을 느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지역 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까. 울타리가 없어 다리에 떨어져 머리가 다쳤다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루에 버스가 7번 오는 지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거기에 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되잖아.”라고 답하진 않을까. 유명한 강사님들의 현장 강의와 각종 과외가 즐비한 곳에서 선택하는 인터넷 강의와, 버스가 7대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듣는 인터넷 강의는 그들과 같은 인터넷 강의일까. 그들과 같은 환경일 수 있을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바깥에서 도시를 본 적이 없다. 언제나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에 그 풍경이, 그 환경이, 집 앞의 편의점이, 골목마다 비추는 가로등이, 시시각각 오는 버스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무료 전시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백조가 물속에서 끊임없이 헤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나 같은 사람들은 서울에서의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있다. 울타리 없는 시멘트 다리에서 부서진 내 한쪽 머리뼈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라지 않았다. 뼈가 없는 그 공간을, 그 많은 사교육의 격차를, 인프라의 격차를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공전리의 한 학우를 누군가는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우수상>

이근영과 박화영, 김화영과 유근영, 서근영과 ...

글로벌융합대학 유 다 현

<2020년 서울, 4월, 00 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자, 일제강점기 시기 1920년에는 조선 여자 교육회가 결성되었고...” 점심 직후 4교시 1학년 1반 교실에서는 한국사 수업이 한창이었다.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목소리, 창을 뚫고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 선선한 바람, 그 어떤 것도 막 점심을 먹은 학생들의 졸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창가 쪽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근영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이씨, 한국사 시험 잘 봐야 하는데..내신 중요한데...’ 열심히 되뇌었지만 근영이의 눈은 이미 감기고 있었다.

<1920년 경성, 4월, 이근영의 집.>

“얘! 이근영!” 누군가 마당의 평상에 앉아 졸고 있는 근영의 어깨를 세게 흔들었다. 근영의 오랜 친구 화영이었다. “얼른 가자, 곧 시작이야.” 화영이 말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근영이 기지개를 하며 평상에서 일어났다.

올해 17살이 된 근영이와 화영이에게는 모두 남편이 있었다. 특히 근영의 남편은 유달리 까칠하고 까다로웠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벽부터 준비한 아침상의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남편 탓에, 근영은 시부모의 질책 어린 시선을 잔뜩 받아야 했다. 그래서 근영은 아침을 먹자마자 시장에 가서 새로이 장을 보았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점심을 차렸다.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드시 근영이 외출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경성 거리를 걸으며 근영과 화영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종다리 예배당에 갈 일은 없는 건가?” “그러게. 정말 재밌었는데. 학우들과 쌓은 추억이 너무 많아.” “밤에 학우들이 가져온 음식을 몰래 먹는 것도 정말 재밌었는데. 그치?” 즐거운 대화 내용과 다르게 무뚝뚝한 표정의 근영이와 화영이의 목소리는 서로에게만 들릴 만큼 매우 작았다. 경성 거리에는 유독 일본 경찰들이 많았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되면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어딘가로 데려갔다. ‘우리가 하는 일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차미리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야학의 학우들의 귓가를 울렸다.

근영이와 화영이가 목적지인 종로구에 거의 다다를 무렵, 이들은 또래로 보이는 남학생이 일본 경찰 두 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들은 남학생의

옷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들을 불렀다. 경찰들이 남학생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이미 기절 직전인 학생의 두 팔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다. 근영이와 화영이는 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태극기였다.

이전에도 근영이와 화영이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들은 태극기만 보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작년 3.1운동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이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근영이는 알지도 못하는 태어나기도 전의 조선을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화영이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먼 미래의 조선을 상상해 보기 시작했다….

<1919년 경성, 3월, 경성의 거리>

그해 조선의 곳곳엔 태극기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3월부터 시작된 3.1운동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집에만 있던 근영이와 화영이 역시 거리로 나가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때쯤, 근영이와 화영이는 한 여성이 건넨 전단지를 받았다. 종다리 예배당에서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였다. 그 언젠가 신문을 읽는 남편의 모습을 동경했던 화영이는, 망설이는 근영이를 데리고 예배당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차미리사 선생님과 열몇 명의 학우들을 만났다. 근영이와 화영이가 16년 인생 처음으로 무지의 부끄러움과 학습의 열망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밤마다 근영이와 화영이는 종다리 예배당을 찾았다. 여러 이유로 인해 밤에 학습을 해야만 했지만 차미리사 선생님은 언젠가는 이들이 정식으로 수업받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밤이 아닌 낮에,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 배우길,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여러 것을 배우는 날이 오기를 바란 것은 차미리사 선생님의 소망에서 비롯되어 어느새 야학에 모인 모든 여학우들의 바람이 되었다.

<1920년 경성, 4월 19일, 종로>

바닥에 떨어졌던 태극기를 눈에 담은 근영이와 화영이는 서둘러 차미리사 선생님이 계신 곳을 찾았다.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차미리사를 발견한 근영과 화영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걸음을 빨리하기 시작했다.

“근영아, 화영아. 와주어서 고맙다”

차미리사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곳으로 근영과 화영을 안내했다.

1920년 4월 19일, 야학에서 모였던 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조선 여자 교육회’라 적힌 글씨는 차미리사를 비롯한 모든 학우들의 가슴을 울격하게 만들었다. *“일천만 여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하노라. 장옷을 벗고 긴 치마를 잘라버리고 첩첩이 닫힌 속에서 뛰쳐나오너라..”* 강당을 울리는 차미리사의 목소리가 학생들의 눈에,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닿았다.

<1921년 경성, 2월, 경성 건물 안 >

오늘은 전국 순회 강연의 첫 강연 날이었다. 경성 여자 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개최된 전국 순회 강연은 84일간 전국을 돌며 강연을 통해 여성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중대한 기회였다. 강연회에 소속된 근영은 오늘로부터 약 3개월간 집을 비워야만 했다. 하지만 조선에서 여자의 몸으로 집을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과 시부모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었다. 가족들이 근영에게 욕을 할 때마다, 근영은 차미리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성의 교육은 여자들의 손으로 일구어야 한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강연회에 근영마저 빠질 수는 없었다. 근영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뛰쳐나왔다.

“연애는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남이 옳고 그르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남녀의 사랑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부모의 뜻에 떠밀려서 하는 결혼은 기어코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강연 중인 무대 뒤 편에서 입장료를 세고 있던 근영은 잠시 돈을 세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기어코 남편 김 씨와 부부의 인연을 만든 근영의 부모를 떠올렸다. 또, 근영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차례차례 떠올렸다. 근영이가 좋아했던 노을, 화영이와의 추억, 그 언젠가 근영이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한 남학생의 얼굴……

그리고 근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를 원망했다.

“저녁에는 연극 보러 가야지. 오늘은 뭐였던가, 춘향전이었나?”

“그래, 춘향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연기를 엄청 잘한다더라.”

강연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근영이는 화영이 생각에 잠깐 우울해졌다. 오늘 공연은 꼭 보러 가기로 했는데…생각에 잠긴 근영은 강연회 회장 언니의 목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

“애 근영아! 부산으로 가는 기차 타려면 얼른 짐 챙겨야해!”

<그 시각, 경성 소극장 안>

무대를 준비하는 화영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다. 화영은 연극회 소속이었다. 화영은 근영의 추천으로 연극회에 들어갔다. 원체 자기감정에 솔직하고 활발했던 화영을 잘 알았던 근영은 연극회 지원 전단지 보자마자 화영에게 달려갔다. 화영은 그곳에서 자신도 몰랐었던 재능을 찾았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실제로 화영이 주인공을 맡은 연극은 경성 바닥에서 꽤나 입소문을 타서, 후원금은 물론이고 연극회가 끝난 뒤 열리는 바자회까지 사람들이 붐볐다. 강연회, 연극회, 바자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오롯이 조선 여자 교육회의 경영에 쓰였다. 화영은 연극을 하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느꼈다. 박 씨의 딸, 정 씨의 아내에서 벗어나 화영은 춘향을 연기할 때만큼은 오로지 박화영, 그 자체일 수 있었다.

<10년 뒤, 1931년 경성 외곽, 9월, 시골의 거리>

“오늘 종이에 쓴 단어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알았죠?”

근영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대문 밖으로 나왔다. 요즈음 근영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1925년, 조선 여자 교육회는 근화 여학교가 되었다. 교명이 바뀌던 날, 사진기를 손에 든 근영의 옆에서 한 벌의 양복을 든 화영은 “우리들의 이름을 따서 근화 여학교가 됐나?” 하며 실없는 농담을 했다. 그 후 31년에는 농촌 지역의 민중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학교 대표를 뽑았다. 그리고 그 대표로 유달리 성실했던 근영이와 유달리 활발했던 화영이가 근화 여학교 대표로 뽑혔다.

근영은 수업이 끝난 뒤 한글 교재 한 권을 가슴팍에 고이 넣은 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저기 근영 학생!” 근영은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손주가 이제 깨어나서 한 번만 읽어주고 싶은데, 오늘만 책을 놓고 가주면 안 될까?” 근영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 유독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할머니와 손주였다. 한글 교재로 쓰이는 책은 수업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도로 가져가야만 했다. 일제의 탄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집마다 교재를 배부해 주다 걸리는 일도 허다했다. 그러나 근영은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째 수업을 듣지 못했던 할머니의 손주가 마음에 걸렸다. “그럼 할머니, 이번 한 번만이에요. 내일 제가 왔을 때 다시 돌려주셔야 해요.” 근영은 가슴팍에 있던 교재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근영은 외곽을 빠져나오는 길목에서 잠시 멈춰 섰다. 새빨갳게 지는 노을이 근영의 어깨 위로 흩어졌다. 근영은 자신의 시선 끝에 있는 드넓은 벌판을 바라보았다. 시골의 풍경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시끄러운 경성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고즈넉한 풍경이 있었다. 근영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근영은 집에 있는 4살배기 자신의 딸, 순이를 떠올렸다. 아직 어미의 품이 한창 필요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마다 자리를 비워서 유독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순이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경성 중심가에 와있었다. 얼른 순이를 보러 가야지, 하며 걷던 근영은 “아악!”하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일본 경찰 두 명이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옆에 위치한 마차로 여자를 집어넣고 있었다. 경찰들은 여자의 양팔을 잡고 여자의 눈을 가린 채 마차를 출발시켰다. 근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화영이었다.

화영을 태운 마차는 근영의 앞을 지나쳐갔다. “조선 총독부로.” 마부에게 말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가만히 멈춰있는 근영을 스치고 빠르게 지나갔다. 근영의 귓가엔 이미 쿵, 쿵, 쿵 거리는 자신의 심장소리만 들렸다. 1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화영이라면? 나는 왜 보고

만 있었지? 화영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 근영은 자신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줄도 모른 채,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너도 나도 못 본 체하며 빠르게 흩어지는 경성의 조선 사람들 속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근영의 모습은 눈에 띄기 쉬웠다. 일본 경찰이 근영에게 다가왔다.

“너 뭐야? 너도 방금 그 여자랑 한 패냐?” 근영의 귓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일본 경찰이 근영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근영은 반항해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방금 그 여자처럼 옷에 책을 숨기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

집으로 돌아온 근영은 이미 잠들어버린 순이를 껴안으며 한없이 울었다. 근영이의 남편 김 씨가 미친 듯이 우는 근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며 물어보았지만, 근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밤새 화영이의 집 앞에 앉아서 울었다. 근영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찾아 밖으로 나온 화영의 남편 정 씨를 만났다.

화영의 남편은 주저앉고 말았다.

<10년 뒤 1941년 경성, 9월, 덕성 여자 실업학교>

“와, 이번에도 김화영이 1등이다!”

여학생들의 환호 소리가 운동장을 울렸다. 정작 체력훈련 시험에서 1등을 한 화영은 무덤덤할 뿐이었다. 달리기,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기본적인 체력훈련은 이미 도가 튼 화영이었다. 화영은 학교가 지루했다. 매일 아침 ‘위대하신 천황을 위해…’로 시작하는 기초 훈련 연습은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 작년까지는 화영이도 학교를 참 좋아했다. 엄마와 자신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지은 것만 같은 근화 여학교라는 교명이 바뀐 것은 아쉬웠지만, 엄마가 존경하는 차미리사 교장 선생님도, 학교 앞에 활짝 핀 무궁화도 참 좋아했었다. 그러다 작년 8월, 교장이 바뀐 이후로 학교는 뭔가 이상해졌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화영이는 학교가 끝난 뒤 시골 뒷산에서 몰래 배우는 사격 훈련을 더 기다리게 됐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화영은 함께 훈련하는 언니 오빠들이 하는 어려운 말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뒤 태극기에 이름을 적는 그 순간만큼은 언니 오빠들이 말하는 어려운 말들을 알 것 같기도 했다. 화영이는 알 수 없는 슬픔 또한 느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끝엔 항상 엄마가 생각났다. 화영이가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잃어버린 우리 엄마 ……

“순이야! 조심해야지!”

연습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던 화영이는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한 여성이 넘어진 아이를 향해 ‘순이’라 부르며 꾸짖고 있었다. 화영이는 ‘순이’라는 이름만 들으

면 이유 없이 가슴이 쿵, 쿵 찢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화영이의 옛 이름은 ‘순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이는 ‘화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엄마가 순이의 이름을 화영으로 바꾸길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와 아빠가 말하기를, 순이가 화영이가 된 이후로 엄마는 말을 잃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크게 울지도 않았다. 화영이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집에 몇 없는 흑백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우리 엄마 사진과였다고 했지…. 화영이는 가끔씩 엄마가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차미리사 선생님도 보았고, 유독 색이 바래진 사진도 보았다. 한복을 입고 화장까지 해서 마치 연극배우 같은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엄마는 이 사진만 보면 항상 울었다. 그래서 색이 바래졌으리라, 사진을 쓰다듬으며 화영은 옆에 잠든 엄마를 한참이나 바라보고는 했다.

생각을 끝마친 화영이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한테 오늘 배운 자세를 보여 줘야지, 하며 달려가는 화영이의 어깨 위로 그 언젠가 근영이 보았던 노을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3년 뒤 1944년 4월, 경성의 골목>

일본 경찰들은 조선의 온갖 집을 쫓고 다녔다. 그리고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죄다 쓸어갔다. 그 중심에 있는 경성은 갈수록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다. 그때쯤 화영은 학교를 그만두었다. 어느 날 아주 늦은 밤, 유독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골목에서 화영은 한 여학생이 일본 경찰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구타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화영의 발소리가 유독 작았던 건지, 아니면 만만한 조선 여성에게 분풀이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건지 일본 경찰은 화영이 가슴팍에 있는 총을 자신에게 겨눌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탕!’ 소리가 울리며 일본 경찰은 쓰러졌다. ‘총소리가 울리면 그제 어디든 소란스러워진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화영의 머릿속을 스쳤다. 화영은 쓰러져있는 여학생을 일으켜 세웠다. “어서 가야 해. 힘들겠지만 일어나 보자.” 여학생은 화영의 어깨에 기대어 몸을 움직였다.

얼마만큼 뛰어온 걸까. 화영과 여학생은 외진 숲속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여학생이 화영에게 말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같은 조선 동지끼리 돕고 사는 거죠 뭐. 이름이 뭐예요? 저는 김화영이에요. 17살.”

“아, 저는 유근영이에요. 덕성 여자 실업학교를 다녀요. 저도 17살이에요.”

<2020년 서울, 4월, 00 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야! 서근영! 수업 다 끝났어! 선생님께서 너 엄청 째려보고 가셨다” 자고 있는 근영을 쿵쿵 찢리며 근영의 짝꿍이 말했다. 분명 턱만 괴고 잤는데, 어느새 근영은 수업이 끝난 줄도 모르고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분명 10분밖에 안 잤는데, 근영은 자는 동안 꿈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몇 번을 깨웠는데 일어나지를 않냐..” 중얼거리는 짝꿍에게 근영이 말했다.

“야 화영아, 선생님 화 많이 나셨어?”

<덕성 100주년과 나> 문구를 보자마자 2020년과 1920년을 연결하는 두 인물이 떠올랐고, <덕성인의 기초> 수업 자료를 토대로 소설을 작성할 수 있었다. 덕성의 뿌리이기도 한 ‘근화’라는 이름이 나는 무엇보다도 참 마음에 들어서 ‘근화 여학교’에서 비롯된 여러 명의 근영이와 화영이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제목이 미종결된 표현으로 끝난 이유는 그 뒤에 무수한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스라한 그 시대의 아픔, 동시에 찬란히 빛났던 차미리사 선생님과 ‘근화’의 향기가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잠시나마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장려상>

보이지 않는 공포에게 작별을

정치외교학과 김 가 현

나는 지렁이가 항상 무섭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렁이라는 글자만 봐도 치를 떨었고 사진은 더더욱 못 봤다. 실제 지렁이를 보면 그 자리에서 숨을 순간적으로 못 쉬고 울어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지렁이에 대한 것처럼 보이는 공포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심한 보이지 않는 공포도 존재한다. 나 자신의 보이지 않는 공포는 내가 항상 잘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들켜서 남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었다. 대학 진학 이후 많은 실패를 겪고 내심 자부심을 가졌던 비교과 우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더니 상황은 더 심해져서 작년에는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무로하게 누워있기만 했었던 적이 있었다. 스스로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해 직시를 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면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고, 더 우울해져 갔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공포는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거대한 중압감을 주기 때문에, 보이는 공포보다 더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공포를 대하는 자세는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과 이청준의 『소문의 벽』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통해 비교 분석해볼 수 있다.

『파놉티콘』에서 파놉티콘은 벤담이 설정한 일종의 감옥 건축 양식인데, 이 파놉티콘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공포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놉티콘의 기본적인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파놉티콘은 기본적으로 2개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수용소이고, 하나는 감시탑이다. 이러한 감시탑은 발로 가려진 복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용소 안 수감자들에게는 감시탑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에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임에도 보이지 않으니 항상 감시당한다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내면에 자리잡히게 된다. 이는 수감자뿐

만 아니라 규율 외적으로 수감자들을 가혹하게 압제할 가능성이 있는 하급 관리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여기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전혀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수감자들이 암묵적으로 강요된 굴복에 기계적 순종을 하게끔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파놉티콘의 핵심이다.

보이지 않는 공포를 조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파놉티콘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고통 완화의 원칙과 수감자에게 죄 없고 자유로운 가난한 사회 구성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해주면 안 된다는 엄격함의 원칙, 공공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한 목적을 위한 가혹함이나 관대함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제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파놉티콘은 구체적으로 성별 간 격리와 무리와 범죄자 특성별 분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비교적 큰 수용실에 인원은 공동 모임에 적합한 2~4명 정도로 적게 만듦으로써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 방지용으로 정신의 개선을 위해서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정신적,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교화시키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때, 일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하는 일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단순 노동보다는 수감자의 흥미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일을 제공해줘야 하며, 이는 사회에 다시 진출했을 때 노동에 익숙해진 한 개인으로 만드는 훈련들이다.

이러한 파놉티콘은 봄-보임이라는 불평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공포를 내면화시켜서 함부로 수감자가 행동하지 못하게끔 통제하였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공포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수용소보다 나아 보이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감자 자신도 모르게 새 권력망 안에 있게끔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신체 억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개인을 새 방향으로 교화시킴으로써 내면화를 통한 '순종적 신체' 그리고 추후 국가에 '유용한 신체'로 만듦으로써 보이지 않는 공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파놉티콘은 수감자의 저항 의사를 짓누르고, 이를 환경적 요소의 개선이라는 장치를 통해 개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공포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용하는 파놉티콘과 달리, 이창준의 책 『소문의 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포 자체는 부정적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공포는 주인공인 '나'가 만나게 되는 박준이라는 인물의 전깃불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다. 박준이 쓴 장편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6·25 전쟁 당시, 보이지 않는 상대

가 주저 침입을 해 어린 그의 바로 위에서 손전등을 내리찍으며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상대가 보이지 않기에 말을 잘못하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박준과 그의 어머니는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그 기억이 박준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의 일생의 한 부분이 된다.

한 신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준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정직한 진술은 항상 상대방이 복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행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정직한 진술은 곧 그가 과거에 겪었던 전깃불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억압을 전제하는 것이다. 억압은 소문을 통한 압박과 갈등으로 연결되는데, 박준은 이러한 억압의 수단들에 맞서서 정직한 진술을 지속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박준의 발언은 보이지 않는 공포가 긍정적이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파놉티콘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박준의 주장을 읽은 ‘나’는 그동안 자신의 잡지사도 왜 필자들이 글을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찾게 된다. 누구나 다 박준이 불빛에 대한 공포를 가졌던 것처럼 종류는 다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것에 순응해 살아가서 적극적으로 글을 쓰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공포가 존재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고 활용하느냐는 개인의 입장마다 다르다. 벤담은 파놉티콘의 보이지 않는 공포를 긍정적으로 이용해서 감옥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 더 나아가 억압적인 사회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을 양산해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소문의 벽』에서 보이지 않는 공포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정직한 진술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소문의 벽』에서의 기본 주장은 푸코의 권력 이론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푸코의 권력 이론은 지식이 권력을 내포했을 때 권력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식은 이데올로기와는 달라 주체와 주관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면 안 된다고 하였다. 결국, 그가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생산해내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합리화되는 상황을 양산하는 정치, 경제, 제도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고, 특정한 지식을 보편적 진리라고 강요하는 헤게모니 이론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진리의 강요와 억압에 대한 해결방안은 자율적인 자아 실천으로 단일 진리 개념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자아 성찰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강요받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자아 성찰을 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진리를 강요하는 태도를 안 보일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지만, 계속 성찰을 해야 한다고 푸코는 주장한다. 『소문의 벽』 박준도 마찬가지이다. 한 신문 잡지에서 인터뷰한 기사에서 그는 “한 작가가 자기의 문학 행위를 어느 쪽에서 출발하고 있든 그것은 완전히 그 작가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정직한 작가라면 자기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고, 대개의 경우 한 시대의 압력이란 모든 작가들에겐 상대적인 것이며, 한결같이 그들을 강제할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가 자기 시대의 요구를 비겁하게 회피하지 않는다면 작가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한 시대의 압력이라는 어찌면 보이지 않는 공포를 받아들이고 극복해나갈 방법을 스스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푸코의 자율적 자아 실천을 통한 문제 해결과 유사하다.

반면에, 『파놉티콘』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공포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에 대한 순응성을 강조시킨다”라는 지식을 합리화해서 그것을 진리로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공포는 긍정적 요소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한다.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사람을 사회에 순응시키려는 벤담의 파놉티콘적 방법도 효과가 있긴 하다. 하지만 사람을 사회에 순응시키는데 이러한 방법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문의 벽』의 결말처럼, 보이지 않는 공포를 계속 주입함으로써 박준이 심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영영 실종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을 순응시킨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사회의 억압으로 강제되는 것이라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박준이 말했던 인터뷰 내용처럼, 보이지 않는 공포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억압에 순응하는 인간이 아닌 극복해나가는 인간이 되어 할 것이다.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던 보이지 않는 공포의 진정한 극복이 바로 이러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최고가 되어야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억압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억압에 대해 나 자신은 자율적으로 자아 성찰을 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공포심으로 모든 것을 회피했었고, 그것이 나를 거의 1년 동안 문제아가 되게끔 했다. 보이지 않는 공포를 인정하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학교도, 부모님과과의 관계도, 나 자신에 대한 관리도 매우 소홀한 상황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일기를 써서 나 자신에 대한 자율적인 자아 성찰을 하며 보이지 않는 공포를 조금씩 직시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악몽도 꾸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완

전한 억압에서 벗어나기에는 멀었다. 그래도 완전히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해야 한다는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율적 자아 성찰을 통해서 한걸음씩 발전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21년 내 인생은 늘 10퍼센트에 머물러 있었다. 태어날 때 2.4kg으로 10퍼센트의 몸무게였으며, 중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0퍼센트였고, 대학교도 정시 백분율로 10퍼센트의 학교를 왔다. 아마도 나의 노력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겨우 10퍼센트에 머물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이제 자율적 자아 성찰을 통해 10에서 나아가려고 한다.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배수를 선택하여 10의 제곱인 10 X 10를 이루어 100의 상태, 즉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쉽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의 직시였고, 덕성여대가 1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이러한 첫 발자국을 떼었다는 것이 내겐 큰 의미가 있다. 직시를 통한 지속적인 자아 성찰을 하다보면 언젠가 내 자신의 능력치도 100에 가까워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스스로의 공포를 직시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며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극복법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항하여 열심히 싸워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덕성인이 될 것이다.

<장려상>

노인들도 꽃이 되고 싶다

문화인류학과 김 한 별

‘복지국가를 넘어서’라는 교양 시간에 노후 불안이 없는 삶이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다. JTBC에서 제작한 ‘너희가 양로원을 아느냐’라는 다큐멘터리는 양로원에 처음으로 입소하게 된 노인,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인 혹은 많은 시간을 보낸 노인 등 노인을 화자로 내세워 사례 중심으로 양로원 모습을 현실적으로 조명하고 있었다. 즉, 단순히 전문가나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양로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로원이라는 공간 속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입으로 ‘양로원의 삶’을 말한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양로원의 삶을 자녀로부터 ‘권유’, 사실은 통보에 가까운, 받은 노인의 1인칭 시점으로 시작된다. “어머니도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게 편하시지 않겠느냐”. 노인은 자녀에게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입소하게 된 ‘자연친화적인 좋은 시설’의 양로원은 주변에 편의시설이란 존재하지 않는 도시 외곽의, ‘노인 격리시설’이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시설 인테리어였다. 서로 다른 양로원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에 각 방은 고시원이나 기숙사를 연상케 하는 침대 여러 개와 책장 몇 개만이 덜렁 놓여있었다. 공동공간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넓은 거실 안에 소파 몇 개와 텔레비전 하나가 놓여있는 게 전부였다. 보통 한 방에 몇 명씩 같이 쓰기에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개인공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개인공간 또한 침대 하나, 책장 하나가 다였다. 노인들은 주로 그저 옹기종기 모여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교우가 있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것 이라고는 없는 그저 옛 얘기를 몇 번이고 주워섬기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양로원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간단한 체조나 에어로빅 댄스를 배웠다. 식사, 취침, 텔레비전, 고스톱, 얘기, 체조. 그리고 또 식사, 취침... 그 작고 단조로운 공간에서 수십 명의 노인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르는 여생을.

그 짧은 영상 시청 시간에 벌써 내가 그 생활에 질려버린 기분이었다. 시간을 어떻

게 때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저런 공간에서 어떻게 인생의 2막을 꿈꿀 수 있겠는가? 킬링타임용으로 영화를 보듯, 그냥 남은 인생을 때우는 느낌이었다. 별 관심과 고민 없이 짜여진 시설과 환경 속에서, 노인들은 ‘유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고자 하는 시설의 의도가 엿보여서 화가 났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과 효율을 뽑아내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그러나 엄연히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공급자가 그 선을 넘으면 소비자들은 반발한다. 수요가 없을 테니 감히 공급자도 질 낮은 공급을 꺼린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놀랍도록 확장된 노년기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내외부적 결속이 깨지는 혼란스러운 과도기 속에, 양로원의 진정한 수요자인 ‘자녀’들의 암묵적 동의로 양로원의 질 낮은 환경은 용인되고 있다. 어떻게든 좋으니 짐스러운 존재를 보내고 죄책감을 덜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라면 어떤 양로원을 지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나라면,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다. 먼저 공동공간이라는 이름 아래 허락된 방치된 공간을 일단 줄이고 최대한 개인공간을 확보했을 것이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노인들마다 그들의 좁은 책장은 자신의 개인물품으로 빼곡히 차 있었다. 자녀나 손주의 사진, 자신의 추억이 담긴 물건 등. 청년이 미래를 동력으로 살아간다면, 노년은 과거를 동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을 과거의 성취와 마음에 담은 추억들로 씻어내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들에게 개인 물건이란 더더욱 소중한 의미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집 한 채를 허락할 수 없다면, 작은 방 하나만이라도 넉넉히 허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취향과 선호가 담긴 물건들로 오롯이 채워진 공간, 획일화된 모습이 아니라 개성이 담긴 공간으로. 한국사회의 양로원의 모습과 대비되어 보여진 스웨덴의 양로원의 산뜻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공백의 결여를 느꼈던 것 같다. 혹은 이왕 땅값 때문에 양로원을 외곽에 지어야 한다면 그 점을 십분 활용해서 외부공간을 좀 더 멋있게 꾸미면 어떨까. 작은 연못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꽃을 키우거나, 텃밭을 가꿀 수도 있을 것이다. 닭이나 오리 등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 교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땀을 흘리고 육체를 쓰고, 땅을 밟고 흙을 부비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내외부 환경 말고도 중요한 것으로 내부적인 복합적 프로그램을 꼽고 싶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환으로 인해 하체를 움직일 수 없으면서도 같이 사는 다른 노인이 아끼는 재봉틀을 고쳐줄 만큼 정신적으로는 강건한 노인의 사례였다. 스무 살 적, 암에 걸리신 아버지는 1년을 꼬박 병실에 누워만 계셨다. 하루의 대부분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것만이 허락되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도 쇠약하지만

또렷한 의식을 갖고 여전히 참여한 사고를 하시던 아버지가, 도대체 매일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상상해보면 마음이 정말 무너졌다. 생각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죽음을 계속 의식하면서 선고된 하루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신안군 염전 노예사건’의 희생자들의 후일담을 들은 적이 있다. 악마 같은 신안군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의 ‘구조’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그들을 장애시설에 보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노라고. 그러나 그들 중 일부 혹은 꽤 다수는 다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신안군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돌아간 이유를 물었다. 행복하고싶어서 였다고 한다. 먹고, 자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이 전부인 세상에서 맘을 흘리고,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싶었다고. 누군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의 결과가 정말로 그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냐는 점에서 논의의 빈약함을 관통당한 기분이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행복은 자고,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정신적 유희와 노동은 삶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재봉틀을 고치며 눈을 빛내는 그 할아버지가, 누워 있으나 정신적으로 강건한 자를 위해 마련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여생을 즐겁게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기원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본 것은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일 것 같다. 바로 노년학 강의를 프로그램으로 넣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특히나 더 생애주기에 따른 특정 과업이 분명한 사회다. 그것은 속박과 억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특정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확장된 노년기는 그러한 담론이 부재하다. 즉, 갑자기 노년기가 무한히 확장되면서 남은 삶은 늘어났는데, 은퇴 이전까지 분명히 정해졌던 사회적 역할이 갑자기 끝나면서 노년기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확인된 정체성도 없고 논의조차 부족하니 개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노년기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회복지학에서는 최근 노년과 관련하여 Active Aging 개념이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가 최근 벌이는 50+재단 운영과 시니어 일자리사업 주최 등은 이러한 개념에서 기인한다. 문자 그대로, ‘노년기’에 ‘활발한 노년기’의 이미지를 덧입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직 창창한 나이라고. ‘노년의 꿈’이라는 수사가 어색하게 들리는 현대사회에서 활발한 노인에 대한 표어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앞서 말한 노인의 정체성의 혼란기에 자신의 긍정적 정체성을 규범 짓고 새롭게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배려한, 복지적 측면의 함

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령 위에서 말한 노환으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에게 ‘Active Aging’이란 어떤 의미일까? 65세 이상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에서 규정한 ‘노인’이긴 하지만 아직 육체적으로 강건한 노인들 말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락한 80대 혹은 그 이후의 대다수의 노인들에게는? 노인이란 사실 아주 단순히 연령적으로 단순히 묶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다른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 성별 등을 기준으로 세세하게 나뉘는 집단이다. 그들 모두를 최대한 포괄하려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인구를 유효한 생산인구로 쓰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Active Aging 말고도 노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필요하다. 노인집단만 거주하는 특수성을 갖는 양로원이란 공간은 적어도 그러한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노인들도 노인은 처음 겪는 것이다. 그들도 노화와 노인에 대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 임신에 대한 지식이 첫 임신을 겪는 이들에게 중요한 도움과 기반이 되듯이, 노화와 노인에 대한 여러 담론들이 그들이 겪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그로 인한 우울감 등을 없애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근래 들어 페미니즘과 동성애에 관한 논의 등 약자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말 좋은 일이다.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증진은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내가 노인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노인에 관한 문제가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다며 소수자의 권리 운동에 긴급함과 우선도를 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이상, 그 긴급도와 민감도는 그것을 주장하는 개개인들에게마다 모두 다른 것이고 함부로 이 문제가 더욱 시급하니 네 문제는 미뤄두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는, 노인들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그저 세대 갈등이나 태극기 부대 등의 정치적인 이슈로 편협하고 편향적으로 소비된다. 분명 ‘노인’이라고 묶이는 집단에게만 존재하는 차별과 문제가 있고 그것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들에 대해 심층적이고 진지한 사회적 관심과 반향이 없다. 이들에게도 대신해줄 목소리가 필요하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로 마무리를 해보려 한다. 양로원에 사는 이들은 그냥 ‘노인들’이 아니다. 다들 각자의 인생사가 있고 취향과 선호가 다른 ‘개개인’들이다. 들여다보아줬으면 한다. 누구에게나 그냥 ‘노인’이 아니라, 그들도 개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누군가에게 꽃이었으면, 한다.

<장려상>

적막하고 소란했던 백 번째 생일

영어영문학과 노미리

[미리야~새내기 배움터 취소됐다. 집에서 쉬어^^ -2020/01/31]

재난영화의 전조 같은 시작이었다. 문자를 받기 한 달 전, 집행부 동기가 방학을 맞아 늘어져 있던 내게 새터 진행에 참여해 달라며 부탁을 해왔다. 거절할 핑계가 없어 귀찮음을 무릅쓰고 그러마 답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떤 전염병'의 몸집이 이상할 만큼 불어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취소는 새내기 배움터였다. 집에서 좀 더 쉴 수 있어 솔직히 기뻐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졸업식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졸업하는 선배한테 꽃다발을 줄 수 없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쉴 수 있다는 건 기뻐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대구에서 사이비 종교에 의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읽었다. 마침내 개강이 연기됐다. 첫 번째 공지는 일주일이었다. 두 번째 연기는 그보다 더 늘어났고, 세 번째 공지엔 한 달 뒤의 날짜가 써 있었다. 나는 올해 초 청년전용대출을 받아 자취방 계약을 전세로 돌리고 2년을 연장했다. 연고 없는 도봉구 한구석 원룸의 침대에 누워 잠들 때마다, 대출 심사 맞추려고 방학 내내 고생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솟았다. 계속 쉬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의미 없는 가정을 세다 까무룩 잠들고, 일어나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전자출결 앱을 확인했다. 한 학기의 개강이라기엔 지나치게 적막한 시작이었다.

3월. 곳곳이 자취방에 머물렀던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오기에서 비롯했다. 본가에 머물러도 대출이자는 인출될 텐데, 공실로 방을 굴리는 게 아까웠다. 두 번째 이유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방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20여 년 살며 몇 번이나 겪었던 듯 전염병들처럼, 한두 달 들끓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좀 쓰고 다니면 가라앉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손을 아무리 씻어도,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서 백날진을 쳐도, 무엇인가 취소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개강 날짜는 훌쩍 멀어졌고 과제가 쌓이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확진자 수가 배로 늘었고 생중계 브리핑이 24시간 진행됐다. 4월, 한 학기 통 온라인 강의를 원하냐는 문답에 망설임 없이 'o'를 그리며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건 정말로 '창궐'이라는 것을. covid-19는 이미 전 세계에 세차게 일어나 견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라는 것을 바야흐로 실감했다.

2020년은 덕성이 백 살을 맞이한 해다. 학교 곳곳에 예쁜 벨벳 휘장이 걸렸다. 본가에서 짐 싸들고 올라오며 서울역을 지났을 때 전광판에 걸린 ‘덕성의 백년’ 광고를 봤다. 때때로 우리학교 마크를 뒷문 광고판에 두른 버스와 마주친다. 프린트를 뽑으러 갈 때나, 장을 봐야 할 때 가끔. 정상적인 개강을 맞았다면 동기들과 한껏 모여 사진을 찍었을 ‘스팟’을 홀로 보고 지나치는 기분은 무척 쓸쓸하다. 나를 쓸쓸하게 만드는 것은 장소의 적막함 만은 아니다. 우리학교는 이른바 ‘덕성굿즈’라 불리는, 학교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디자인 물품이 유명하다. 뱃지에서 시작해 한복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덕성굿즈’는 인터넷 상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덕성 100년의 해는 ‘굿즈’를 위한 모티브가 되어주기에 더없이 적절하고 의미 깊은 행사였다. 그러나 학교 문이 닫히고, 따로 만나 거래하기도 영 꺼림칙한 상황 속 제작되는 물건은 그 종류와 수가 많을 수 없었다. 그나마 나는 학우들이 제작해 팔아줄 메모지, 스티커, 샤프펜슬, 키링… 등을 구매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용돈마저 자취방에 칩거하는 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먹느라 다 까먹어버린 상태였다. 딱 한 가지, 열 감지 카메라의 검열을 뚫고 받아온 학교의 자체제작 ‘I can’ 다이어리만이 올해가 덕성이 빛어진 지 백년이 되는 영광스러운 해라는 것을 나에게 일깨워주는 ‘굿즈’로 남았다.

이토록 적막하고 쓸쓸한 학기를 보내는 가운데, 동시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다. 한 학기가 통으로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고, 훗날을 기약하며 미뤄두었던 ‘진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온라인 강의라는 것은 친숙한 동시에 무척 낯설었다. 사교육을 통해서, 혹은 EBS강의를 듣기 위해서 몇 번이나 활용해 본 매체였지만 학교, 그리고 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학교가 존재하는 한 교실은 영속하리라는 믿어왔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비단 일개 학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온라인 출석,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교수님들께도 까다로운 숙제였다. 듣는 수업 아홉 개가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떤 수업은 앱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며, 어떤 수업은 직접 만든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고, 또 다른 수업은 제공된 자료를 활용한 과제를 매 시간 평가받으며 진행된다. 평가방식 역시 수업마다 제각각이다. 어떤 수업의 시험은 포털을 통해 시행된다고 알려진 뒤 별안간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교수님의 슬픈 공지와 함께 취소되기도 하고, 무리하게 평가를 강행한 나머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수업도 있었다. 본교의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허구한 날 온라인 강의에 관련된 화제가 ‘핫 게시판’에 올랐다. 추천 클릭수가 10개를 넘는 게시글만 오를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이 온라인 강의 이슈로 도배된 것은 최근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부재가 불러온 혼란의 양면이다. 너무 적막해서 외롭고, 너무 번잡하여 소란스럽다. 만날 수 없어 쓸쓸하고, 만질 수 없어 불분명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내가 학교 곳곳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의탁해 두었는지 알 수 있었다. 자취방을 나와 흠 내음 맡으며 걸었던 후문 대로변, 차관에서 인대까지 달리며 밟았던 빨간 우레탄,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걸었던 대강의동 나선 계단, 열람실에서 공부하다 잡생각

이 들 때 고개를 살짝 올리면 뻑뻑하게 보였던 학우의 정수리들, 그 모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나를 아무리 어르고 달래 봐도 학교에서만 집중하질 못했다. 컴퓨터 화면 속 교수님을 빌 때면 이따금 외로움이 울컥 치솟았다. 분명 몸은 더 편한데, 불편함이 그리웠다. 나의 코로나 블루는 학교를 그리는 향수병으로 나타났다. 인쇄할 것이 있어 학교에 방문할 때면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영근터를 서성대거나, 예쁘게 몸단장 마치고 문 한번 못 연 1층 도서관을 기웃대다 아쉬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정작 맘 놓고 다닐 수 있었을 때는 가기 싫다며 뻘뻘 날이 많았는데, 배가 아프면 그제서야 '나에게 배가 있었지!' 하고 느끼듯, 학교에 못 가게 하니 내게 학교가 어떤 존재였는지 열렬히 와 닿았다.

이렇듯 학교와 교실을 잃어 미아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외로움과도 싸우고, 향수병도 이겨내고, 짜강도 열심히 들으며 과제도 해내야 했다. 함께 공부해주는 전우의 부재로 집중력은 곤두박질쳤는데, 출석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숙제의 양은 용솟음쳤다. 교수님과 소통이 힘드니 질문은 마냥 째이기만 하고, 습득은 빈약해지고, 의지는 희미해지는데 과제는 점점 더 많아졌다. 처음엔 출석 확인의 용도였던 것들이 어느 날 수시 과제로 바뀌고, 진도 평가용으로 바뀌고, 마침내 중간고사 대체용이 되었다. 언젠가 과제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막막해서, 울며불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마감 2분 전에 제출했던 적도 있다. 그럴 때면 교수님을 원망하다가, 교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과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세상을 원망하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의연히 해결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비난하는 쪽으로 원망의 방향을 돌린다. 교수님이라고 매주 과제를 출제하고 채점하고 평가해서 반영하는 일이 쉽진 않을 테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확인할 수단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사이버 개강은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지독한 난제로 다가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속 어쩌면 당연하게 실현되어야 했을 온라인 수학(受學)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문득 의문이 들었다.

“300년 전 교사를 잠재웠다가 오늘날 교실에서 눈을 뜨게 해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방형 온라인교육(MOOC) 업체 코세라의 공동창업자 대프니 콜러는 말했다. 그 말 그대로 학교는 유구한 역사를 지나오며 한 번도 ‘공간’에서 독립되지 못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이버 대학마저 철조 건물을 캠퍼스로 두고 있듯이. 왜일까? covid-19의 창궐과 같은 상황이 오리라곤, 그러니까 한국전쟁 중에도 천막치고 공부해온 한국마저 부득불 학교 문을 닫게 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데믹은 이미 일어났고, 우리 사회는 학교 공간의 절대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었던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며, 또 한 번 정문을 걸어 잠가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운동장, 강의실, 도서관, 광장을 가진 ‘공간’으로서의 학교는 신성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이 인터넷 강의, 즉 공간에서 분리된 수업을 빈번히 활용한다. 그러나 그들이 인강을 듣는 이유는, 또 다시 실체를 가진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가기 위해서다. 학교는 특별한 장소이며 그러므로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유튜브를 켜 줄 아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21세기 정보사회 속, 실제 공간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교육체계가 과연 바람직한가. 어찌면 이런 변화는 좀 더 일찍,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공짜로 인터넷을 켤 수 있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던 때부터, 가정통신문이 사라지고 카톡으로 알림장이 전송되던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번 사태를 겪는 동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좌절을 경험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거동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 학우들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교실에 오고 가는 데에서 겪었을 불편함 만큼은 적어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을 겪어왔던 학우들 역시 막대한 교통비는 물론, 대중교통 속에 끼어 운반되며 매일같이 잃었던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신기술을 이용해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교육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선, 일종의 금제처럼 여겨졌던 ‘학교 공간의 탈피’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커질 것이고, 타인과 상호작용 할 때의 학습 효과와 오롯이 혼자 수행하는 학습 효과 간 효율의 간극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나,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진 소외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 공간으로 인해 보장받을 수 있었던 안전한 삶에 대한 대안 역시 신중히 논의되고 강구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역시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 안일하고 둔감하게 보냈던 시간만큼 예민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구해야 한다.

백 년은 한 세기다. 덕성은 한 세기를 버텼고 새 세기를 선물 받았다. 두 번째 세기의 막을 열며 맞이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존 질서의 전복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 길거리에서 타인의 맨얼굴 보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날이 오리라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 전국의 학교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학교 수업을 듣는 날이 오리라 예측한 한국인이 과연 많았을까. 또,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학교에 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해본 학생이 있었을까. 백 살의 생일을 이토록 고요하고 시끄럽게 보낼 거라 생각한 학교가 있었을까. 미래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그러므로 변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변화와 혁명의 전장을 지난 결과가 어떤 모습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공부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혁명의 한가운데 맞이한 덕성의 백 년을 축하하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다.

<장려상>

『깊이에의 강요』: 만족시킬 수 없는 깊이에 대한 대답

철학과 안 선 하

책 『깊이에의 강요』를 쓴 저자,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은둔 작가로 유명하다. 몇 번의 수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는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아 마을 주민들에게 ‘두더지’라 불린다.* 집에 초대하는 사람조차 한정된 그를 지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뿐이다. 이야기의 짧은 간극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물의 심리를 보고 있다면 저자의 내면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깊이에의 강요』는 책의 제목이자 책의 네 가지 목차 중 한 가지이다. 젊은 여성 화가가 평론가에게서 받은 비평으로부터 고뇌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인 『깊이에의 강요』는 사회의 일면과 인물의 내면을 여지없이 들춰내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역량이 드러난다. 평범함에 묻힌 일상을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전개해 현실의 모순을 나타내 보이며 간절한 문체로 흘러가는 인물의 심리는 독자를 설득하다 못해 이입하게 만든다. 가브리엘라 폭스는 해당 작품에 대해 “센티멘털리즘을 느끼게 하거나 전혀 유치하지 않게 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세계를 잘 표현해 독자의 심금을 울려줄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말한다. 『깊이에의 강요』의 배경인 예술계는 의견이 분분한 분야 중 한 곳이다. 예술에 문외한이라고 해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예술의 정의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쉽게 거론된다.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생각과 의견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모습을 저자는 꼬집어내 독자에게 자신도 그런 적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그래서 『깊이에의 강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현실과 겹쳐지는지 찾아볼 생각이다.

어릴 때부터 웃어른에게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있다. 대표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지.”, “배우자를 잘 만나서 결혼해야지.”와 같은 말이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듣지 않은 적은 없었다. 상대방

* 유혜자, 「은둔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 『문학동네』, 제2호(1996), (주)문학동네, 1쪽 참조.

** 가브리엘라 폭스 · 유혜자, 「한국에서 만난 파트리크 쥐스킨트」, 『문학동네』, 제2호(1996), (주)문학동네, 6쪽.

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호의는 『깊이에의 강요』 맨 앞부분에서도 나온다.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젊은 여인이 초대 전시회에서 어느 평론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녀를 복돋아 줄 생각이었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주인공의 비극은 평론가의 순수한 호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격려 차원으로 말한 말이라도 당사자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소위 ‘잔소리’로 여기는데 앞선 주인공의 상황은 잔소리를 들은 한국인의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릴 때부터 많은 잔소리와 훈육을 듣고 자란다. 사회에 모자람이 없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채워야 할 요건과 지침은 넘쳐났다. 외부에서 들어온 잔소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마음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해야 할 선택과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강요받았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타인에게 강요하는 양상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연예계이다. 연예인들은 외모지상주의와 자본주의가 극심한 곳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중에게 듣는 말은 의견과 조언을 넘어선 강요에 가깝다. 영화 시사회에서 동료 배우가 얘기할 때 짝다리를 짚고 손에 시선을 잠깐 두었다는 것에 태도 불량을, 나이와 활동 이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우를 ‘선배님’이라 존칭하지 않고 ‘~씨’란 호칭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무례함을, 팬미팅에서 여성 서사 책을 읽었다는 말을 했다고 논란을 받은 연예인은 즉각적인 비난과 못매를 당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질 새 없이 편향된 의견으로 굳어지는 건 언론의 영향도 있다. 특정 연예인의 행보에 관한 기사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따라 여론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비평을 외우고나 있는 듯이 그림들이 첫눈에 일깨우는 호감과 많은 재능에 관해 연신 말을 꺼냈다. 그러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으면 뒤편에서 나지막이 주고받는 소리와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젊은 여인은 들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나쁘지는 않은데, 애석하게 깊이가 없어요.」**

주인공의 작품에 대한 평론가의 논평이 신문에 올라가자 사람들은 그가 한 비평에

* 파트리크 쥐스킨트, 『깊이에의 강요』, 김인순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20, 9쪽.

** 같은 책, 10쪽.

동조하기 시작한다. 이미 형성된 의견에 사람들이 분간 없이 동의하는 장면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세워진 도덕적 기준은 책 『깊이에의 강요』에서 주인공이 충족할 수 없는 ‘깊이’와 같다. 여기서 기준과 깊이는 명확하지 않은 범위로 허상에 가깝다. 범위로 일컫는 선은 언제든지 변환 가능하고 예상하기 어려워 권력을 가진 이가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깊이에의 강요』에서는 현 사회에 고착화된 위계를 찾아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평가를 하는 자’와 ‘평가를 당하는 자’, ‘언론 매체 및 대중’과 ‘개인’이다. 일반적인 법칙으로 여겨지던 보편성의 위계 아래에 개별성이 사라지는 건 주인공의 심리 묘사에서도 나타난다.

미술품 상인이 베를린에서 전화를 걸어 그림 몇 장을 청했을 때, 그녀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나는 깊이가 없어요!」*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깊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화풍을 공부하며 화랑과 박물관을 견학한다. 심지어 철학책까지 찾아 읽어보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건 좌절밖에 없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주인공은 시간이 갈수록 주관과 개별성을 잃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가 없다고 말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 즉,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에 이른다.

깊은 나락에 떨어진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개인에게 맡겨져 버린 고뇌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음 뒤에도 평화롭게 잠들지는 못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 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을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하다니, 이것은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적 관심과 예술분야에서의 사려 깊은 동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장려와 개인의 의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결국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개인적인 것에 있었던 듯하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충격적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이고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에의 강요를?>**

언론은 주인공의 비극을 자극적인 기삿거리로 다루고 평론가는 <거듭>이라는 제목

* 같은 책, 11쪽.

** 같은 책, 14쪽.

의 평으로 그녀를 애도하려 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비평가는 그녀가 고통을 겪게 된 원인이 모두 주인공, 개인에게 있다고 추측한다. 여기서 기득권 세력에 의해 그녀의 고뇌와 죽음, 가치가 재정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주인공이 채워야 했던 ‘깊이’라는 선이 기득권으로부터 좌지우지되는 범위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주인공의 죽음을 두고 나타나는 양상은 현실상에 있었던 2019년 젊은 여성 연예인의 부고를 떠올리게 만든다. 언론은 반성 없는 한낱 기삿거리로 삼을 뿐이었고 생전에 많은 비난을 쏟던 대중들은 사후에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빌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느끼는 안타까움과 후회, 그리움은 그녀들의 부고에서 생기는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한 알팍한 감정은 아닌지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비극적인 결말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가브리엘라 폭스는 『깊이에의 강요』를 저자의 다른 저서와 비교하며 차이점을 말한다.

그의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중략)… 한결같이 소시민들로 모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인 것을 추진할 능력이 거의 없고,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면의 세계로 물러서는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상처받은 가슴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부추기며 일어서지만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 그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았다. 좀머씨와 화가는 스스로 택한 죽음을 통해 해방되었다.*

위처럼 『깊이에의 강요』 주인공은 다른 저서의 주인공들과 달리 죽음에 이르러서야 고난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젊은 여성 화가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개인을 압도하는 위계에 있었다고 본다.

저자의 또 다른 저서, 『비둘기』의 주인공이자 은행 경비원인 조나단은 비둘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향후 계획을 무너뜨릴 뻔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비둘기와 마주하려 한다. 그의 고난은 문 너머에 있던 공포의 대상이 사라진 것으로 해소되지만 『깊이에의 강요』에서 주인공은 어려움을 직면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녀에게 주어진 고난은 은행 경비원의 고난과 다르게 형제 없는 범위이다. 주인공은 몇 주 동안 ‘깊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간다. ‘깊이’는 자신보다 높은 위계와 권력만이 휘두를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깊이에의 강요』의 다른 목차인 『문학의 건망증』을 얘기할 수 있다. 『문학의 건망증』은 저자,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작가로서 가진 고뇌

* 가브리엘라 폭스 · 유혜자, 6쪽.

에 대해 쓴 에세이다. 과거에 읽었던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저자는 동일한 책을 마치 처음 보듯이 읽는다. 이전에 읽었을 때와 같은 생각과 느낌을 또다시 체험한 자신을 보며 그는 반복적으로 잊어버리는 일이 좋은지 나쁜지를 고민한다. 여기서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저 작가로서 지켜야 할 지침만을 방안으로 내놓는다. 즉, 분분한 의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뿐인 것이다. 어떠한 기준치를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나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자아를 잃지 않고 주관을 지킬 때 문제는 문제로 남지 않을 수 있다.

<장려상>

인간의 표본, 오이디푸스

글로벌융합대학 윤 다 님

“운명은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조롱한다.”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의 명언이다. 여기 신이 내린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과 좌절을 다루고 있는 비극이 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다. 자식이 생부를 죽이고 생모와 몸을 섞을 것이라는 신탁은 이 작품에서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된다. 결국 이 신탁은 그것을 막고자 했던 여러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어 절대적인 신의 힘을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운명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묵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어진 신탁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은 당사자를 운명 앞으로 인도하지만 결국 이는 그의 자유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이 작품 속에는 신이 내린 운명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이 존재한다.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부부는 부모의 입장에서 신탁을 마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탁의 실현이 두려워 갓 태어난 자신들의 아이의 발을 쇠꼬챙이로 꿰뚫고 그 아이를 산 속에 내다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반면 오이디푸스는 자식의 입장에서 신탁을 접한 사람이다. 오이디푸스 또한 신탁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부모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 이후 오이디푸스는 길을 지나가던 도중 한 무리와 시비가 붙어 살인을 하게 되는데, 살해를 당한 사람들 중 하나가 오이디푸스의 생부인 라이오스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된다. 두 입장의 사람들 모두 신탁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신탁의 실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다.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갓난아기에 불과한 아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불같은 성정을 참지 못하여 이 같은 일들을 벌인 것이다. 결국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신탁과의 개연성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인도한 것이다. 이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후, 전령의 말 속에서 드러난다. “이 집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감추고 있으며, 곧 고의로 행한, 고의가 없지 않았던 재앙들을 밝히 드러낼 것이니 말입니다. 한데 사람

들은 재난 중에서 스스로가 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는 법입니다.”* 당사자들이 신탁을 듣고 다른 선택, 적어도 도덕적인 선택을 했다면 결과의 참담함이 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파멸을 의미하는 운명을 마주한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인 존재로 변모하고 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이 내린 운명은 대립하는 관계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의 급진적인 성격은 진실이 더욱 극적으로 밝혀지고 비극이 극대화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오이디푸스의 강한 추진력은 작품 속에서 양날의 검으로 드러난다. 오이디푸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며 이를 위해 권위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유능한 왕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강한 추진력에 비해 그는 신중함이 부족하여 쉽게 다른 사람을 속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하여 다른 사람들을 협박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고자 한다. 입을 열지 않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파멸을 예고한 테이레시아스의 말을 근거로 자신의 처남 크레온을 반역자로 취급하는 오이디푸스의 행동들은 그의 성격적 결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이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왕에 대한 주변인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현명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정을 내리는 데 빠른 사람은 위험에 빠지기 쉬우니 말입니다.”**라고 한 코로스 장의 조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의 급한 성격은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판단력 저하로 이어져서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와 더불어 오이디푸스는 주변인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진실을 밝힐 것을 고집스럽게 요구하는데, 이는 결국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야기하여 더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이처럼 그의 성급함과 집념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 사실상 오이디푸스의 성격은 그가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기에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오이디푸스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의 발현이 불가결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이며 어머니와는 동침하여 자녀를 낳은 사이라는 사실은 그 아들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등장인물들은 비극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른 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 속에는

*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강대진 옮김, 민음사, 2009년, 99쪽

**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강대진 옮김, 민음사, 2009년, 58-59쪽

진실이 밝혀져야만 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로, 이 작품 속에는 선대왕의 살인범을 밝혀내야 땅의 저주가 풀린다는 전제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진실은 병든 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밝혀져야 했다. 그런데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신탁의 당사자들은 진실의 무자비한 비참함으로 인해 고통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수를 위해 소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과제가 된다. 여기서 진실이 드러나야 했던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신탁의 실현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신탁의 당사자인 오이디푸스와 라이오스, 이오카스테는 신탁과 관련하여 각각 비인간적인 일을 벌인 바가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탁의 실현에 기여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행위가 야기한 무거운 진실을 직면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듯이 모든 진실이 이유와 상황을 불문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방식은 무고한 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했으므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진실이 꼭 필요한 상황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져야만 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 왕>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인간다운 삶’은 인간의 연약함(약함, 무지 등)이 드러나는 삶이 아닌가 싶다. 영원불멸의 신과 필멸의 인간 사이의 간극은 이 작품의 전반에서 강조된다. 신탁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기심과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며 스스로의 불행을 촉진시킨다. 자신들의 불행을 예고한 신탁 앞에서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두려움의 싹을 잘라내 고자 자신들의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아들이 틀림없이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이오카스테는 운명이 실현될 것을 두려워하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킨다. 오이디푸스가 아들임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또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 사람의 정체와 상관 없이 언제나 반인륜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라이오스인지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 비도덕적인 행동을 인식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의 비도덕성을 은폐하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운에 의해 혹은 스스로의 무지로 인해 자신들의 행로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통해 인간의 덧없음과 불행을 노래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코로스의 입을 빌려 작품의 마지막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필멸의 인간은 저 마지막 날을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누구도 행복하다 할 수 없도다, 아무 고통도 겪지 않고서 삶의 경계

를 넘어서기 전에는.”*

따라서 <오이디푸스 왕>은 단순히 신의 운명 앞에 굴복하는 인간의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처음 작품을 접할 때는 허무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곱씹어 볼수록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느껴진다. 이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운명을 직면한 인간의 선택지에 대해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다.

*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강대진 옮김, 민음사, 2009년, 116쪽

<장려상>

죽음의 취업 길에서 행복하기

-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IT미디어공학과 이 다 슝

혼자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잦아졌다. 그럴 때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도서관으로 향했다. 눈길이 가는 책을 전부 집었다. 열 권 남짓의 책을 잔뜩 쌓아두고 책장을 넘기고 또 넘겼다. 책은 보물지도였다. 원하는 때 언제나 상황에 맞는 필요한 말을 알려주며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하지만 모두가 친절하고 자상한 편은 아니었다. 보통은 암호처럼 나에게 필요한 말은 꿈꿈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았다. 어떤 날에는 내용이 어려워서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글을 쓰고, 주변에 물어봐야 겨우 이해가 될 때도 있었다. 그만큼 재미있었다. 쉬운 것은 쉽게 질리기 마련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무궁무진한 보물 지도 앞에서 자주 들떴다.

긴 6년의 대학교 생활을 마친 뒤,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나는 도서관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습관처럼 향한 도서관에서 아주 멋진 보물을 발견했다. 이름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고전이다. 오래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어영부영 미루다 보니 끝까지 읽지 못했다. 왜 이 책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읽었다. 내 상황에 맞는 네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었다. 호불호가 분명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곧장 떠오르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도무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매일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대학생활 내 해외와 관련된 교내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해외 인턴을 계획하며 준비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계획해 둔 모든 프로그램이 예외가 없이 취소가 되었다. 실망하고 갈 곳을 잃어버려서 거의 매일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던 중 책을 읽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 수용소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아우슈비츠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는 상황에 사라진 생명들을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고 끔찍했다. 죽음이 예고 없이,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다 문득 나에게 죽음이라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죽기 전에 무엇을 생각할지 고민했다. 만약 당장 2020년 12월에 죽게 된다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 고민하다 보니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림이 분명해졌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후회가 적은 치열한 삶을 살고 싶었다.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우선 새해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던 터라 바디 프로필을 꼭 찍고 싶었다. 20대의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나를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일본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어학 공부는 평생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거나 혹은 책과 영화를 접할 때에도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즐거웠다. 또한 필름 카메라로 부모님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인화하여 선물로 드리자 정말 기뻐하셨다.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의 부모님은 낯설고 아름다웠다. 또한 지리산에서 캠핑을 가서 별을 관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직무를 찾기 위한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죽음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가정을 통해서 잠시 잃어버렸던 올해의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방향성을 찾자 삶에 활력이 돌아왔다.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두 번째의 교훈은 건강한 삶의 태도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취업 준비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시간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취업 준비의 기간이 막연하고 두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캄캄한 동굴 같았다. 울기도 많이 울었다. 잔뜩 겁먹었으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던 나에게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기대를 갖기 위해 때때로 자기 마음을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라고 말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숨통 트이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언젠가 분명히 끝이 존재했다.

작가는 상황이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극단적인 만큼 시도 때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찮은 일만 생각하도록 몰아가는 모든 상황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른 주제로 돌리기로 했다고 한다. 불이 환하게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을 눈에 그렸다고 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불운한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나 또한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필요했다.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 말이다.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얻게 된 결과물로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며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그렸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게 나의 미래가 될 모습이라니.

주변에 부정적인 말만 달고 사는 지인이 있다. 같이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인데, 항상 자신을 깎아내리고 상황을 비관하는 말만 반복한다. 물론 힘들고 여유가 없는 상황인지라 이해는 가지만,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점차 불편해졌다. 한편으로는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다. 만약 이런 식으로라면 내 곁에 남을 사람은 없을 것이 뻔했다. 그리고 친구의 불평을 받아주고 응원하다 보니 나의 긍정적인 마음까지 불안해지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연락을 끊었다. 어두운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기분이 안 좋아졌다. 친구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만의 원칙을 세웠다. 절대 남들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않기,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 취업준비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일절 하지 않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행동양식을 통해서 취업준비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건강하고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한 필연적인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사실 취업 준비 기간은 원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얻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모든 사람이 겪는 통과 의례이다. 준비 과정을 거친 뒤에서야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꾸준히 노력한 만큼 바라던 일을 성취했을 때의 보람이 크고 값지다. 쉽게 얻으면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중함을 모르기 쉽다. 삶의 태도에 대한 방향키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었다. 어두운 것보다 밝은 부분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매일의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자존감과도 큰 연관이 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신의 행동의 예시로 매일같이 면도를 하던 것을 손꼽았다. 남은 빵을 포기하면서라도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혈색이 좋아 보이기 위해 뺨을 문질렀다고 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목적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의 행동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책을 읽으며 최근의 내 모습을 반추해 보았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었다. 옷도 늘어져 있는 아무 것이나 걸치고, 규칙적으로 씻지도 않았다.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따라왔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해 어지러웠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팠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생각 또한 부정적으로 쏠리기 쉬웠다. 과연 이것이 나를 아끼는 것이 맞을까?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고

고민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듯, 그것과 같이 나 스스로를 위한 행동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굳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잤다. 비싸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었다. 아몬드, 두유, 두부, 채소와 과일 등 일부러 유기농 식품을 구매했으며 식단 일지를 만들고,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빌리고 읽었다. 아름다운 문장을 공책에 적어 놓으며 자기 전에 열어보곤 했다. 좋아하는 영화감독의 영화를 실컷 봤다. 체육관에 가서 매일 한 시간 가량의 근력 운동을 했다. 하루에 광합성을 30분 이상 할 수 있도록 산책을 꼭 했으며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았다. 의무인 집안일을 할 때면 클래식 노래를 틀어놓았다. 웅장하고 멋진 음악을 들으며 일을 하자 힘들고 지루한 노동보다는 고상하고 우아한 일처럼 느껴졌다.

또한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행복한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곧바로 실천했다. 우선적이고 어려운 일은 나의 기분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기분이 찜찜할 때면 나와야 할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렸다.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물었고, 답변이 쉬이 나오지 않을 때면 글을 썼다. 자책보다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켰다. 잘못을 했을 때에 깎아내리고 몰아세우는 것보다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신경을 썼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를 즐겁게 만들고 싶었다. 드럼을 시작했고, 방송 댄스 학원에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독서 모임을 만들었으며, 영어 말하기 모임에 참여했다. 컴퓨터 자격증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다. 성장의 기쁨은 엄청났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고 연습하며 내 실력으로 쌓는 과정은 아주 짜릿하고 달콤했다.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나의 모습이 좋았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은 나를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참을성이 부족하고 빠르게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끈기 있게 노력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열매는 달콤했다.

마지막인 네 번째는 앞의 것들을 통틀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마운 존재를 기억하는 일이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항상 자신의 부인을 생각했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라고 말하는 그는 지구 어딘가에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서조차 그녀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견뎌다 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항상 가족들과 떨어져 살던 대학 생활과는 다르게 본가에 거주했다. 직업상담사로 일하시는 어머니는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직업 목록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부담이 됐고 짜증도 났다. 나 혼자 힘으로 못할까봐 이러는 것일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다. 어머니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는 날도 있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서류에서 탈락을 하던 날이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다.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 날들이 많아졌고, 내가 해야 하는 분량의 집안일을 하지 않던 날들도 있었다. 가족이기에 힘든

상황의 나를 당연히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주 못나고 뼈뿔어진 마음이었다.

책을 읽은 뒤 나도 내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하신 부모님도, 도전을 응원하고 좌절할 때 위로해주는 오빠도,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친구들 모두 다 나를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힘든 시간은 한순간이고,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시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받는 따뜻한 온기, 사랑, 배려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힘을 내라는 말 한마디, 선뜻 사주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 등이 나의 긴 마라톤을 지속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마음가짐을 간직해서 내가 여건이 되었을 때 다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했다. 항상 너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고 말해주는 아버지,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일을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라고 말하는 어머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더 좋은 일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위로하는 오빠까지. 그들의 존재만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준비하고 도전할 힘을 얻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말했다. 긍정적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다고. 처음 들었을 때에는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무 노력 없이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는 예민하고 섬세하여 쉽게 웃고 쉽게 울었다. 그게 변하지 않은 본래 나의 모습이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견고한 장치가 필요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나갔다. 사실을 인정하고 난 뒤 지금은 그토록 노력하는 나 자신이 너무 좋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좋고, 노력을 통해 받았던 여러 기회에 감사하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삶은 눈부시다. 또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 나를 책임지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행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느낌, 감정, 생각, 행동에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실수를 반복하고 상처투성이인 나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하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걸어온 거칠고 굴곡 있는 삶을 사랑한다. 강렬한 열망을 사랑한다. 도전을 사랑한다. 그에 따라오는 수많은 실패를 사랑한다. 도전이 없었다면 많았던 나의 경험은 없었을 것이다. 나를 만든 경험이 없었다면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덜 성숙하고 덜 성장했을 것이다. 아프고 힘든 과정은 더 나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관문.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값이라고 생각한다. 걸어온 모든 발자취를 사랑한다.

책에서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 나의 상황으로 바꾸자면, 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다. 책을 완독한 나는 내가 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나를 위해서이다. 이 책의 이름을 나의 상황에 맞게 고

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음의 취업 길에서.’ 하지만 조금 무서운 제목과는 다르게 생략된 뒷부분을 덧붙이자면, ‘죽음의 취업 길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끊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다솜의 발자취’가 되겠다. 모든 것이 그렇듯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다. 조급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며,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응원할 것이다. 이 값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항상 책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었던 것처럼 나도 나를 잘 가꾸고 길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

<장려상>

암탉이 울면 세상이 바뀐다

중어중문학과 이 은 선

‘제철 음식 마카롱’이라는 유머가 돌 정도로 너도나도 마카롱 열풍이 일고 있다. 그런데 마카롱 가게는 일주일에 두 번만 운영해도 망하지 않을까? 마카롱의 주요 타깃층은 아마도 ‘여성’일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을 타깃으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는 것들을 ‘핑크 텍스’라고 부른다. 이것은 2015년에 생겨난 신조어로 미국에서 일부 마트에서 면도기, 데오드란트와 같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도 여성용의 가격이 더 비싼 것을 고발한 것에서 유래했다. 하필 ‘핑크’ 텍스인 이유는 제조사들이 ‘크기를 줄이고 핑크색으로 만들기만 해도’ 여성들이 적은 양으로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비꼬는 의도이다. 기업은 이에 핑크 텍스는 성차별이 아니며 ‘여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특별한’ 여성용 제품을 만든다고 변론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만드는 여성용 제품은 정말 특별한 것일까? 여성 소비자들은 정말로 그런 여성용 제품을 원했을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이제 핑크 텍스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가스라이팅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충동 소비를 막고 계획적으로 경제 활동을 구상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여성의 입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꿔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페미니즘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최근에는 페미니즘이 주류가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페미니즘 계에서는 최근 탈코르셋 운동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여성성을 탈피하려는 운동이다. 또한 그에 따라 코르셋에 무엇이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여성혐오가 우리 일상생활에 만연하듯이 ‘이것도 코르셋이야?’ 싶은 것까지도 코르셋이고, 개인적으로 페미니즘 관련 서적도 읽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외형적인 코르셋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가치관조차도 순수한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가 강요한 코르셋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들었었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그 중에서도 “핑크텍스”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최종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권력의 우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

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성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더 적게 벌면서 거기에 핑크텍스를 지불해야 한다니 너무나도 부조리한 것 아닌가. 핑크텍스가 특히 악질적인 이유는 색조 화장품이나 여성용 옷들처럼 여성이 주요 소비자가 되는 분야에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사용하는 분야에서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에서조차 여성에게 더 비싼 값을 받는다.

그 일례로 2017년 변비약으로 유명한 회사 '세노피'에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여성을 겨냥해 출시한 '둘코락스 에스'가 있다. 이는 “여대생 10명 중 7명 변비 경험, 핑크핑크한 20대 중요한 순간 망치지 말고 둘코락스 에스”, “핑크핑크한 우리를 위한 청춘 변비템”의 문구를 앞세워 여성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특별한 기능이 있는 변비약인 것처럼 광고한다. 그러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기존의 둘코락스와 완전히 동일하고 다른 점은 핑크색 포장과 높은 가격밖에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미용실이나 각종 꾸밈 용품에 붙는 비싼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값이 형성되었는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라도 있었는데 변비약은 가도 가도 너무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 왜 변비약에도 핑크텍스를 붙일 생각을 했는지 알 것도 같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면 대부분이 필연적으로 생리를 한다. 그런데 우선 생리대 값이 비싼 것부터, 생리대를 나라에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사야 하는 재화인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 생활 용품인 생리대조차도 비싼 값을 매겨 파는데 하물며 아플 때 가끔 사용하는 약에 핑크텍스를 붙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핑크텍스가 붙은 상품을 소비하고 있을까?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사치와 허세에 찌들은 된장녀이기 때문일까? 답은 물론 아니다. 일차적으로 앞서 말한 둘코락스S의 카피라이터처럼 기업들이 핑크텍스가 붙은 물건들을 “예쁜” 여성의 필수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뚱뚱한 것이 미의 기준인 나라가 있었는데 TV의 보급으로 날씬한 모습을 한 여성들을 접하게 되고 미의 기준이 바뀌어 현재에는 거식증을 앓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중매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고, 기업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 더욱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코르셋을 더 강화하고 남성들의 권력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기업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것 아닌가? 라고 반박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런 핑크텍스가 붙은 물건을 구매할 때 누군가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지갑을 열지 않으면 당장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핑크색, 레이스가 달린 물건을 선호하고 대통령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여성 개인의 취향에 의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취향이 정말로 개인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여성성은 곧 사회에 의해 학습된 취향이다. 우리 사회 속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여

성혐오 문화에서 기인한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여성성에 잠식당한다. 영화 <가스등>(1944)에서 영향을 받은 『가스등 이펙트』의 저자 로빈 스텐은 가스라이팅을 반복된 상황 조작과 거짓말로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청년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예쁘면 고시 3관왕”,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네.”, “여자가 어디 다리를 째 벌리고 앉아” 등의 생활 습관부터 그놈의 예쁜 여자타령 등 차별적인 발언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차별적인 말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야망, 꿈, 계획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가 규정한 대로의 삶을 살도록 강요했다. 여자는 예쁘지 않으면, 여성스럽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만든다. 아름다움에 목숨이 달린 여성들에게 예쁜 여성이 광고하는 물품들은 예쁜 여성으로 갈 수 있는 바이블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광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옷, 꾸밈 용품, 먹을 것, 생활용품 등등을 선망하는 풍조로 이어졌다. 사회가 강요하는 여성성에 가장 많이 잠식된 자가 앞서나가고, 그들을 선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모두가 여성성을 쫓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핑크텍스를 소비하는 것은 사회가 추구하는 예쁜 여성이 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름다움은 허상 권력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이상 그런 허상을 쫓기 위해서 핑크텍스를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취향은 여성혐오와 같이 우리 생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눈에 띄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더 버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최종 의제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버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흐름이 자본을 따라간다. 최근에는 페미니즘 흐름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성차별주의자들조차도 “페미코인” 이라고 하며 페미니즘을 다룬 상품에 주력하는 추세이다. 기업의 마케팅 예시로 나이키의 2019 우먼스 저스트 두 잇(2019 Women`s Just Do It)` 캠페인과 각종 펌버 타이징(Feminism+Advertising) 광고 등이 있다. ‘여성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이것은 분명한 명제다.

[참고 문헌]

- 조은채. "[페미&퀴어] 가스라이팅 : 성별화된 세뇌(1)." 제3시대, 114 (2017.8.): 10-14.
<http://www.dbpia.co.kr.libproxy.duksung.ac.kr:8080/Journal/PDFViewNew?id=NODE07241170&prevPathCode=>
- 매일경제, “비싸다vs충분하다…마카롱 가격 두고 ‘시끌’” 카드 뉴스로 본 세상(2019.03.15.)
<http://naver.me/Fbc5xt2w>
- Susan Johnston Taylor, "The Pink Tax: Why Women's Products Often Cost More". U.S. News, (2016.02.17.)
<https://money.usnews.com/money/personal-finance/articles/2016-02-17/the-pink-tax-why-womens-products-often-cost-more>
- 데일리코스메틱, “같은 제품 여성이 더 비싸게 구입, 美 '핑크 세금(Pink Tax)' 시비”(2015.02.25.)
<http://www.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52>
- 스카이데일리, “짜구려 제품 강요받는 남성들 울면서 여성용 산다.”, (2018.07.04.)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5227
- 우리동네 주치약사 JAFPLRE, “둘코락스핑크. 여성을 위한 변비약? 차이점은 뭘까?”(2018.07.20.)
<https://m.blog.naver.com/ddingjong/221322635944>
- 여성가족부,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통계청 e-나라지표, (2018.05.0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 중앙일보, “한국 남성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 받아...남녀 임금격차 OECD 최고”(2017.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1724441>
- 중앙시사매거진 “[논란의 핑크택스가 뭐길래] “소비 불평등 해소” vs “수급에 따른 가격”(2018.07.16.)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2005>
- 중앙일보, “유튜브에서도 부는 '탈코르셋' 바람…"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영상 인기”(2018.06.07.)
<https://news.joins.com/article/22692914>
- 스포츠 경향, “여대생 10명 중 7명, 변비 경험”(2018.09.27.)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9270947003&sec_id=561801&pt=nv#csidxa51e4054beace95a7547f7d01e29d11
- 머니투데이, “난 페미 굿즈를 사고, 페미니즘 영화를 본다”(2018.11.2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521002675404>
- MCN뉴스, “나이키 `저스트 두 잇(JUST DO IT)` 캠페인 런칭…이 시대의 여성들과 함께!”(2019.01.31.)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menuSeq=863&subMenu=tvtenplus&wowcode=W060&articleId=A_201901310579&t=NN

<장려상>

자신을 뒤집을 것

글로벌융합대학 이 주 은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 주셨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을 하나씩 써보세요. 이름은 적지 않아도 돼요. 다 적고 난 뒤 교탁에 뒤집어서 내세요."라고 말씀하셨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단점을 적어 교탁 앞에 냈다. 대부분 별생각이 없어 보였다. 조금 뒤, 모든 학생이 교탁에 포스트잇을 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친구들이 적은 단점을 다른 면으로 바라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서는 뒤집혀 있는 포스트잇 중 하나를 집어 들고 거기에 적힌 한 친구의 단점(고집 센 성격)을 읽으셨다. 그리고 난 뒤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보라고 하셨다. 약간의 정적이 흐른 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발표했다. "고집이 세다는 건 그만큼 자기 의지가 확고하고, 자기주장을 펼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자기주장을 펼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고집이 센 친구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일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싫어할 뿐이었던 것'들은 이런 점에서 '좋은 것'들로 바뀌어 갔다. 친구들의 포스트잇을 읽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활동을 계속 진행하던 그때, 선생님께서는 내가 적은 포스트잇을 집어 들더니 그것을 읽으셨다.

"저는 끈기가 없어요. 뭐든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말아요. 흥미로워 보이는 일들을 잔뜩 찾지만 조금 해보고 나면 다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이 서로의 단점의 좋은 면을 찾아 발표하는 내내 나는 의구심에 가득 차 있었다. '모든 단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과연 내가 적은 단점에서도 좋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답은 당연히 '아니오'였다. 뭐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기다렸다. 조금 뒤, 골똘히 생각하던 한 친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빨리 포기하는 만큼 많은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니…….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일은 그렇게 여러 차례 진행되다가 수업의 끝을 알리는 종이 치고 난 뒤에 종료되었다.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몇십 개의 ‘나쁘다고 단정해 버렸던’ 것들의 좋은 점에 대해 계속 들었다. 누군가는 콤플렉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갖고 싶은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 당시에는 그저 신기하면서도 기이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중학교 2학년 때의 수업 시간, 필자가 중학교 수업을 회상할 때 가장 먼저 짝 떠오르는 기억이다. 이날을 돌아보면 장단점은 양극단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동전처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일 그렇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특성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각이 멈추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사고 안에는 여집합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 A가 아닌 것은 항상 ~A이다. 그 대상이 ‘좋다’고 판단하는 이유에는 대상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이 보여서인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싫어하는 대상의 장점을 보지 못해 그것을 더 싫어하기도 한다. 한 번 호오(好惡)가 결정되면 그 뒤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 이미 평가된 대상을 재평가할 기회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존재에 대해 오판(誤判)할 수도 있지만,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조명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색안경이다. 도덕 시간을 마친 후 계속 떠 올랐던 생각은 전의식 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필자는 이 생각 꾸러미들을 다시 끌어올리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다. 수업이 일찍 끝난 그 날은 일과를 마치고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던 날이었다. 친구들이 모두 모여 학교 근처에 있는 단골 분식집에 우르르 들어갔다. 늘 먹던 대로 주문을 하려 했는데, 한 친구가 새로운 메뉴를 먹어보라고 했다.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단 먹어는 보자!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시키면 되지.”라며 동의하는 친구, “그래도……. 맛없으면 어떡해.”라며 늘 먹던 메뉴를 주문하자는 친구, “이거 뭐 들어간 건데?”라고 물으며 새로운 메뉴의 맛을 추측하는 친구……. 그러자 가만히 앉아있던 다른 친구가 “너희 원래 성격이 이렇게 제각각이었어?”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뒤로 친구들이 모두 자신의 성격 얘기를 꺼냈고, 저녁을 먹으며 한참 동안 성격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날 있었던 일 중 필자가 가장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늘 에너지 넘치고 들떠있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는 말수가 적고 차분한 친구를 부러워했다. 충동적이지 않고 말이 적으니 실수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막 상차분한 친구는 자신의 그런 면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자신이 늘 의기소침해 있고 소심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성격 유형을 선망했다. 그날 이후 필자는 ‘이쯤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단점도 장점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장점은 잘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돌아보면 친구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필자 자신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필자는 시험과 같은 일이 생기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고 늘 즉흥적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의 그런 면을 정말 싫어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하는 친구는 오히려 즉흥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다고 했다. 그 친구의 말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 냈는데 변수가 생겨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게 더 골치 아프다더라.

그날 이후로 필자는 줄곧 좋아했던 것들의 단점을, 싫어했던 것들의 장점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보는 그대로 믿는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착시 현상으로 인해 감각 신경이 뇌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뇌는 그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린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은 귀인 과정에서도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길 한복판에 서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우리는 ‘나’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모든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필자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이제 ‘단점’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파헤쳐보자. 우리가 나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에는 나름의 순기능이 있다. 슬픔은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불편한 감정이라는 생각만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분노는 ‘잘못된 것’을 체감하게 하는 가장 좋은 감정이다. 누군가의 분노 없이는 불평등한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점에서 분노 역시 꼭 필요한 것이다.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등 서로 대비되는 개념일지라도 모두가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흑색과 백색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그려 낸 태극도(太極圖)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와닿을지도 모른다. 태극도의 음과 양은 둘 중 어느 것이 나쁘다는 의미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 자신을 바라봤을 때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자. 자신을 결점투성이일 뿐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조금만 뒤집어 보면 좋은 점도 보일 것이다.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단점과 타인의 장점만 보이더라도 그건 자기 자신이 어딘가 못나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대신 못난 구석들을 뒤집어 보며 그것들의 쓸모를 찾아 보자. 종잇장을 뒤집듯 생각도 뒤집어 보자. 매몰차게 대했던 특성들이 분명 어딘가에 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장려상>

완벽한 세계라는 것은

글로벌융합대학 임 상 희

사람들에게 2020년 현재의 세계와 꿈 같은 유토피아 중 하나의 세계를 고르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세계를 고를까? 모두가 평등하고 자기만족이 상당하며 쾌락만을 즐기는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에 따라서 살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믿는다. 그들에게 이 문명 세계는 그 어떤 세계보다 뛰어나고 완벽하다. 하지만 나는 책을 읽는 내내 ‘과연 그것이 정말 완벽한 세계인가?’라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책은 그들이 말하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 정말로 멋진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선사한다.

문명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급에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교육과 체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상일 뿐,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주입식 행복이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만들어낸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개인의 척도에 따른 것이기에 남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내가 누린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행복하다는 문명 세계에서 상대적 행복이 나타난다. 정해진 계급에 의해 생성된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따라 최상위 계급인 알파는 최하위 계급인 엡실론의 열등함을 위안 삼고, 엡실론은 알파가 하는 복잡한 일의 수준을 위안으로 삼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문명 세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만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꾸며진 행복과 불편한 진실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지난 5월 6일 이해와 소통 세미나의 토론 주제였다. 꾸며진 행복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더 좋을지 모른다. 그 내면이 어떻게 생겼든 결과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어느 정도의 꾸며진 행복은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꾸며진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꽃발 머리’를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것만 보자”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것만 본다면 그 뒤에 감춰진 고통과 현실을 알아줄 사람은 없다. 이 ‘꽃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려 하고 부정

* 꽃발 머리: 현실 감각이 없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적인 것을 외면하려 한다. 그 고통과 현실이 타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도 말이다. 꾸며진 행복을 가지고 산다면 굳이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다. 그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그 행복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고 곧 그 행복은 그저 현실 도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여성은 화장을 하고 불편한 옷을 입으며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게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힘껏 꾸민 여성에게 사회는 친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 친절이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바라봤기 때문일까?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사회가 ‘여성스러운’ 여성에게만 친절하다고 느낄까. 바로 여성을 남성의 밑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여성스러움’ 또한 남성 중심주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여성상일 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여성은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 사회가 규정한 여성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도 행복할 수는 있다. 남성들이 나에게 웃어주고, 선물을 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나 남성이라는 막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해주지’ 않아도 여성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드러내고 그 불편함을 타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꾸며진 행복을 조화에 비유하고 싶다. 조화는 꽃과 똑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그 누구도 조화를 진짜 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꾸며진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해서 행복에 고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 행복을 쟁취했을 때,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완벽한 세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평등한 세계가 완벽한 세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세계의 지배자가 되어 타인을 거느리는 세계가 완벽한 세계일 것이다. 책에서 나타나는 문명 세계, 즉 이 ‘완벽한 세계’도 나의 눈에는 완벽하지 않다. 이 세계가 완벽하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하고 이 체계에 반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과연 완벽한 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제쳐두고 『멋진 신세계』 속 문명 세계를 완벽한 세계라고 정의한다고 치자. 만약 나에게 지금의 삶과 멋진 신세계 속 문명인의 삶 중 선택하라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매일 투쟁하고 경쟁해야 하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고 싶고 완벽한 세계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멋진 신세계 속의 나는 모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험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 세계 속의 나는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세계는 없다. 이 불안정한 세계에 살고 있기에 삶이라는 모험을 할 수 있다. 현실의 삶은 평탄하지 않고 고단하며, 인간은 도전과 좌절을 맛본다. 그로 인해 또 다른 행복을 경험한다. 그것이 성장이다. 인간의 성장이 없는 세계는 무의미한 세계라

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결국 불완전한 현실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이고 완벽한 꿈의 세계는 꿈이기에 완벽할 수 있다.

저자의 뛰어난 상상력과 흥미로운 소재와는 별개로 책의 흐름은 나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1932년에 집필된 책이라서 그런 것인지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거슬렸다. 여성은 희롱의 대상이고 불쌍한 존재로 흘러간다. 성적으로 개방된 문명 세계라고는 하지만 독자인 내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지 그저 유쾌하지만은 않다. 문명 세계의 사람은 성별을 가릴 것 없이 여성의 신체에 대해 품평하고, 높은 평가를 얻은 여성은 그것을 자신감으로 여긴다. 그에 비해 남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대목은 많지 않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 세계에서도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들의 세계이다. 신체적 쾌락을 즐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희롱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멋진 신세계』 속 여성에 대한 표현 방식을 통해 무의식 속에 침범해 만들어진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유지 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단지 책이 집필된 시기가 오래전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2020년인 지금도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책에서 여성을 묘사하는 방식이 현재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쾌한 일들’이기에 내가 단순히 ‘재미있는 묘사’로 느낄 수가 없었다. 올더스 헉슬리가 생각한 미래 세계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낮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나는 책을 읽는 내내 알 수 없는 불쾌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불쾌감의 원인을 깨달았다. 책에서 말하는 ‘야만 세계’는 지금 현대 사회와 닮았다. 가족의 개념이 존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노화를 받아들인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문명 세계에서는 열등하고 더러운 것으로 정의된다. 나는 나의 삶을 더러운 것으로 칭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한 것이었고, 이 ‘멋진 신세계’가 정말로 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불쾌한 것이었다. 올더스 헉슬리가 말하는 ‘멋진 신세계’는 그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현대 사람들은 점점 안정과 쾌락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야만인인 존의 말처럼 ‘불행해질 권리’를 가져야 한다. 불행이 있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법이 정해진 존재가 아니다. 정의되지 않은 존재이기에 특별한 것이고 매일 새로운 삶을 그려나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정의되지 않은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완벽한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장려상>

인공지능은 인류의 생애 주기를 흔들지 못한다

글로벌융합대학 정 희 림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달하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SF 영화나 소설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테드 창 의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는 이러한 흔한 줄거리가 아니다. 소설 속 인공지능인 ‘디지언트’는 이미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기까지 한다. ‘로봇이 감정을 갖거나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넘어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실제로 몇 년 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나 역시 상상 속에만 존재할 줄 알았던 미래가 다가오는 듯한 기분에 잠시 들뜨기도 했다. 그러나 설렘은 공포심을 이기지 못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었다. 디지언트는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한 알파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수준 높은 정서적 소통이 가능하며 이러한 소통이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닌 디지언트의 독자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디지언트가 공포가 아닌 동정의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블루감마사는 디지언트에게 생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기억과 경험을 인간이 원하는 분량만큼 초기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디지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표현된다. 위험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결국 디지언트를 위한 방법이 아닌 디지언트의 판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욕설을 배운 디지언트의 경험을 지우는 것은 오로지 그 디지언트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가질 불만을 막기 위함이다. 디지언트가 욕설을 함으로써 그에게 돌아올 위험이나 불이익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디지언트의 기억과 경험을 지우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소설 속 디지언트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디지언트가 안쓰럽게 느껴졌던 또 다른 사건은 이들을 섹스파트너로서 상용화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등장했을 때였다. 디지언트는 ‘인격을 가진 섹스파트너’라고 표현된

다. 인간은 디지털의 의지를 묻지 않고도 계약서 한 장으로 그들을 섹스파트너로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을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지칭했다. 섹스파트너가 되는 것이 디지털의 자의적 선택인지, 강압적으로 이루지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불쾌감을 일으켰다. 디지털을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을 인간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디지털의 기억을 지우는 행위와 그들을 섹스파트너로 상용화하는 행위 모두 디지털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디지털에게 인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디지털을 수단화하고 있음을 숨기고 합리화하려는 이기심의 최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수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했던 ‘리얼돌’이 떠올랐다. 리얼돌은 여성의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섹스돌로, 실제 사람 크기와 동일하게 만들어진다. 이는 자위 기구의 일종일 뿐인데 왜 수입을 막아야 하나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성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디지털의 성적 대상화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을 섹스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은 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자 동시에 여성이나 어린이 등 디지털이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디지털은 섹스돌과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에 따라 성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다른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셜 속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취향이나 편의, 쾌락 등에 따라 다른 존재를 지배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였을 뿐이다.

한편으로는 ‘인간을 비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도 생겼다. 디지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주목적은 애완용 인공지능이었다. 이후 섹스파트너로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디지털을 동물이나 사람과 동등한 시선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애나가 그녀의 디지털인 ‘잭스’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어린이를 대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은 자주 했지만 디지털을 어린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을 어린이나 동물과 같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패배했다고 해서 안쓰럽다거나 위로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순히 인공지능에 인격과 감정이 부여되어 인간과 더욱 유사해졌다는 이유로 디지털에게 동정심이 느껴지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을 유기체로 인식할 것인지 혹은 하나의 인공지능 ‘기계’ 정도로 인식할지에 따라 ‘인간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도 달라진다. 과학 기술이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이 아닌 디지털의 입장으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학습이 가능하다는 디지털의 특징을 고려하여 내가 덕성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디지언트라고 가정해보았다. 내가 사는 세상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외면으로는 더 이상 인간과 디지언트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일 것이다. 덕성여자대학교만의 특별한 강의인 ‘이해와 소통 세미나’ 수업을 통해 ‘인간과 디지언트는 평등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한다. 하지만 토론을 시작하려는 찰나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현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인 디지언트가 왜 인간과 평등한 위치에 놓여야 하느냐는 의견이다.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디지언트들은 세상에 출시되기 전부터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오랜 시간 교육을 받는다. 또한 매시간 인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심지어 그들이 원한다면 섹스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한다. 물론 인간도 디지언트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며 친구나 가족처럼 대해주고는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디지언트가 자신과 동일한 위치에 오르려는 순간 거부감을 느끼며 반기를 들었다.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며 같은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절대 인간과 같아질 수 없음을 확인한 나의 세상은 깜깜하다.

결국 인간이 디지언트에게 느끼는 동정과 연민은 그들이 인간 아래 존재할 때 뿐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디지언트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디지언트를 이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잔인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자 생존을 위한 본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기에 디지언트에게 가져야 할 윤리 의식이 더 명확하게 존재해야 한다.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디지언트의 특성을 알면서도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잃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잃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직접 훼손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고민한다면 디지언트의 인격 인정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과정에서 디지언트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왜 디지언트를 존중해야 하는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러하듯 어쩌면 디지언트는 인간의 놀라운 기술 발전이라는 수혜를 통해 탄생한 똑똑한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를 잊은 질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우위에 존재할 수 있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는 과정이 그 자신을 성장시킨 결과이다. 이처럼 디지언트라는 가상의 존재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디지언트를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며 이 문제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존재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보며 인간이 대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서 논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를 잇는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는 더 이상 영화 속에

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가치를 인류가 나서서 지켜나간다면 아무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가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은 인간이 여태껏 생존해온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는 인간의 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지는지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는 격차는 매우 크다. 인간의 움직임에 의해 그 손이 약손이 될 수도, 회초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거대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기억한다면 인공지능은 절대 인류의 생애주기를 흔들지 못한다.

<장려상>

누가 우리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나

글로벌융합대학 황수연

‘헬조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저 또한 수없이 듣고, 말하고, 생각하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헬조선’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 중 우리가 왜 헬조선인지 생각해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담고 있는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낸 제 삶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키는 교육 체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시험의 목적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여 잘 이해했는지보다, 나만 이 시험을 망한 건지 다른 아이들도 다 망한 건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시험이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죠. 교사에게도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이 100점을 맞는 일은 전혀 기쁜 일이 아닙니다. 변별력 없는 문제로 등급을 가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다음 시험은 어떨까요? 학생들을 고득점에서 떨어트릴 몫시 어렵고 독특한 문제를 만들어내려 머리를 쥐어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시험을 심하게 망치고 평평 울며 집에 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다른 애들도 너처럼 망한 것 같아. 등급은 괜찮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하고 위로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경쟁 유도 교육,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강압적인 교육들은 학생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책에서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1970년대 독일 교육 개혁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educate)은 밖으로(e-) 끌어내다(duc-) 라는 의미입니다. 고유한 재능은 사람 안에 이미 다 들어있고, 그걸 끌어내는 게 교육이지 지식을 처넣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교육은 사실 반교육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경쟁 교육 다음 장에 등장하는 ‘자기착취’와도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자기착취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자기착취가 자기 계발이라는 이

름으로 끝없이 자행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능이 끝난 후 저에게는 1년 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많은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주어졌습니다. 수험 생활의 노력과 수고들을 보상받듯이 이 시간을 즐겨야 할 저는 왜인지 모르게 더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쉬고있어도 되나?’, ‘다른 무언가를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닌가?’ 등등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가 지금처럼 편하게 쉬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를 ‘내 안에 심어놓은 노예 감독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개인을 억압하는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에 생긴 불행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며, 다시 또 개인을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 안에 노예 감독관을 심어 나를 스스로 착취하고, 번아웃(burnout)이 온 주변 친구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더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 하며 충고했던 저 자신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성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독일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이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한국 대학생이 “외국은 성생활도 활발하고, 성 문화가 개방적이지 않아?”라고 묻자 독일 대학생은 “한국은 활발하지 않은 척만 해! 왜 한국에서는 성을 쉬쉬하고 숨기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렇게나 성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우리나라가 높은 낙태율과 성범죄율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성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악마화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은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다수가 성과 관련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위에 말한 영상에서도 한국 대학생은 자신의 첫 경험 이후 그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나 ‘걸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경험이 더러운 걸레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성을 올바르게 가르쳐 각자가 자신의 아름다운 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어린 학생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책에 등장한 독일 성교육의 첫 번째 원칙은 ‘성과 관련해서 절대 윤리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는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인권과 관계가 있는 성 자체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높은 성범죄율의 원인이 성을 은폐하고 악마화하는 사회적 풍토, 올바르게 못한 성교육, 그로 인해 확립된 잘못된 성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의 분노를 일으킨 ‘N번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그들의 잘못된 성 가치관과 인권 감수성의 결여에 집중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의 성을 착취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그들이 올바르게 않은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은 개인적이고 소중한 것이므로 누군가의 성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

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 문제에 대한 감수성 즉,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이것이 인권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성을 착취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직접 행하고 그것으로 돈까지 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들은 인간이 아닌 그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들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괴물들이 자꾸만 출현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저는 위에서 말한 성을 쉬쉬하는 사회적 풍토와 잘못된 성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TV 프로그램에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출연자를 희화화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육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고, 솔직을 가장한 무례한 말로 얼굴을 붉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언젠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제 상황이든, 연출된 상황이든 웃으며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재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권도 침해받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고,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 이것이 더는 우리나라에 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가장 작지만 큰 방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누리 교수님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고 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집에 가서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쥐 잡듯이 들볶는 권위주의적 교사요, 혹은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일삼는 상사라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하지요?’.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으로 볼 수 있듯이 정치 민주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는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지요.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어 나갈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내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는 길잡이 같은 책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불평하다가도, 이에 물들어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시다. 지금껏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에 가담한 것 같기도 해 마음이 무거웠습시다. 저를 포함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대한민국의 잔인한 현실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올해 성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가,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4회
덕성 글쓰기 공모전 수상작

주최·주관 차미리사교양대학 소통역량개발센터